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혜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교수방안 연구  
-‘-어서’와 ‘-니까’를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원원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교수방안 연구  
-‘-어서’와 ‘-니까’를 중심으로-

강혜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원원

# 인 준 서

장원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시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_\_\_\_\_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징을 각각 정리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의 인과관계 연결어미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관한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 대상,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전체적인 특징, 한국어 교육 측면, 한·중 대조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나누어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인과관계 표현의 범위를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와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로 나누어 살핀다. 한국어 연결어미와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 표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 그중 논의의 주제인 ‘-어서’와 ‘-니까’,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를 대상으로 자세히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과관계 연결표현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핀다. 나아가 각각 통사적 측면, 의미적 측면과 화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인과표현 ‘-어서’, ‘-니까’와 중국어 대표적인 인과관계 접속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각 교재에서 나타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에 대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오

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교재에 나타난 문제점과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으로서 앞에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의 검토	4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II.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과관계 연결표현	11
2.1. 한국어의 인과관계 연결표현	11
2.1.1.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특징	11
2.1.2. ‘-어서’와 ‘-니까’	13
2.2. 중국어의 인과관계 접속사	25
2.2.1.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표현의 특징	25
2.2.2. ‘因为…所以…’와 ‘既然…就…’	29
2.3. ‘-어서’, ‘-니까’와 중국어 접속표현 대조 분석	36
2.3.1. ‘-어서’와 ‘因为…所以…’	36
2.3.2. ‘-니까’와 ‘既然…就…’	44
III. 교재분석과 오류 분석	50
3.1. 교재분석	50
3.2. 오류분석	54
3.2.1.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55

3.2.2. 조사 결과 분석 .....	57
IV. 인과관계 연결어미 교수방안 .....	62
4.1. 수업 지도 모형 .....	62
4.2. 교수 방안 .....	65
V. 결론 .....	77
참고 문헌 .....	80
ABSTRACT .....	84
부록 .....	87

표 목차

<표 1> 2012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요 국가 현황 .....	1
<표 2> ‘-어서’와 ‘-니까’에 대한 연구 .....	5
<표 3> 한국어 연결어미 분류 비교 .....	12
<표 4> 한국어 연결어미의 개수 .....	13
<표 5> ‘-어서’와 ‘-니까’의 ‘-었-’과 ‘-겠-’에 대한 사용 가능성 비교 ..	14
<표 6> 통사적 측면에서 ‘-어서’와 ‘-니까’의 특성 .....	19
<표 7> 의미적 측면에서 ‘-어서’와 ‘-니까’의 특성 .....	22
<표 8> 중국어 접속사 종류 .....	27
<표 9> ‘因为…所以…’와 ‘既然…就…’에 대한 연구 비교 .....	29
<표 10> 중국어 인과 표현 ‘因为…所以…’와 ‘既然…就…’의 비교 .....	35
<표 11> 각 학교 교재에서 제시된 인과관계 연결어미 .....	51
<표 12> ‘-어서’의 교재 제시 상황 .....	52
<표 13> ‘-니까’의 교재 제시 상황 .....	53
<표 14>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설문 조사 내용 .....	55
<표 15> 초급 한국어 학습자 조사 결과 분석 .....	57
<표 16> 중급 한국어 학습자 조사 결과 분석 .....	58
<표 17> 중국인 학습자 ‘-어서’와 ‘-니까’의 정답수 .....	60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한·중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에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3년 5월 교육부에서 등록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은 총 외국인 유학생의 6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제2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학습자는 그 언어를 어렵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쉽게 느낀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어는 전형적인 교착어인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이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고 종류도 복잡하다. 그리고 한국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한자를 화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공부할 때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려움을 느낀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한자어가 많아서 쉽다고 생각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가 되어도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문법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의 연결어미가 매우 난

1) <표 1> 2012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요 국가 현황.(교육부, 2012.4.1. 기준)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 수	55,427	4,093	2,665	2,447	1,510	3,797	16,939	86,878
비율(%)	63.8	4.7	3.1	2.8	1.7	4.4	19.5	100

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아주 다양한 연결어미를 가지고 있고 연결어미를 통해 절과 절, 또는 절과 동사구 사이의 다양한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결어미의 유사한 의미와 용법의 특징 때문에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자주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복잡하게 분류된다. 또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복문이 이루어지면서 특별한 의미관계를 갖게 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결어미를 배울 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문법이나 어휘를 많이 배워도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정확한 의사소통을 잘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절과 절 사이에 덧붙이는 연결어미에 대한 사용법이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데, 이 역시 오류를 빚어내는 원인이다. 중국인 학습자도 예외가 아니다. 즉,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도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연결어미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연결어미는 교과서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된다. 인과관계는 선행절이 이유·원인이 되고 후행절이 결과가 되는 관계를 가리킨다. 자주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는 ‘-어서, -니까, -(으)니, -므로, -느라고, -기 때문에, -기에’ 등이 있다. 조철현(2002)에 의하면 초급에서는 기본적인 연결어미들의 대치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즉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중에서 ‘-어서’와 ‘-니까’에 대한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 ‘-니까’에 대한 사용법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사용법을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한국어 중·고급학습자들도 ‘-어서’, ‘-니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 ‘-니까’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교수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sup>2)</sup>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는<sup>3)</sup> 복잡하고 다양하다. 정춘란(2009)에서는 학자들이 모두 인정한 인과관계 접속사로<sup>4)</sup>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 ‘由于…因此…’(때문에…그래서)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인과관계 접속사를 나타내는 연결구는 인과관계 접속표현이라고 한다. 중국어에서는 흔히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표현이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 ‘由于…因而/因此…’(때문에…그래서), ‘…以至/致…’(…으로 된다), ‘可见…(…을 볼 수 있다)’ 등이 있다. 이들 중에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접속표현이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이다. 이와 대조되는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는 ‘-어서’, ‘-니까’, ‘-므로’ 등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간섭으로<sup>5)</sup>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 유사점이 많은 것을 느끼고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특히 이런 경우에 학습자들은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를 배울 때 학습자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효율적인 제시와 교수를 위해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표현 ‘-어서’, ‘-니까’가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표

---

2) 이가(2012:1) 참조.

3) 연구자들에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는 연결어미를 지칭하는 용어가 좀 다르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의 경우에는 연결어미라고 하고, 이에 관한 표현을 연결표현이라고 지칭한다. 중국어의 경우에 접속사라고 하고, 이에 관한 표현을 접속표현이라고 지칭한다.

4) 중국어에서 접속사란 단어나 단어 결합 혹은 문장을 연결시켜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부류이다. 중국어 접속사에는 병렬을 나타내는 접속사 외에도 문장과 문장 사이의 선택, 원인, 조건, 가설, 양보 등 여러 가지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함께 관용문형도 포함된다.

5) 학습자들이 제2언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 것을 언어전이라고 한다. 언어전이는 긍정적 언어전이와 부정적 언어전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촉진, 후자를 간섭이라 한다.

현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up>6)</sup>

따라서 본 연구는 화용적인 측면, 통사적인 측면, 의미적인 측면에서 각각 인과관계 연결표현의 특성에 따라 중국어와 한국어 연결표현을 자세히 검토하고 ‘-어서’, ‘-니까’에 대응하는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표현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두 언어의 대조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 인과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서’, ‘-니까’의 사용법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여기서 얻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수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의 검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과표현은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와 중국어 인과표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한국어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전체적인 특성, 한국어 교육측면, 한·중 대조연구 3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전체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 ‘-니까’의 전체적인 특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초기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최현배(1965), 성낙수(1978), 이상복(1981), 남기심·루코프(1983), 윤희현(1989), 전해영(1989), 남기심(1994) 등이 있다. 왕정춘(2003)은 ‘-어서’, ‘-니까’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표 2>로 상세히 정리했다.

---

6) 이가(2012:2) 참조.

<표 2> ‘-어서’와 ‘-니까’에 대한 연구7)

저자	-어서	-니까
최현배 (1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까닭’이나 ‘때문’, ‘가짐’, ‘수’이다. 원인의 의미기능을 강조함.</li> <li>·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제약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까닭’이나 ‘때문’이다. 이유의 의미기능을 강조함.</li> </ul>
남기십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을 밝힘.</li> <li>·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나 ‘-르 까요’의 문문을 제약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추리·판단의 이유.</li> <li>· 따짐.</li> </ul>
성낙수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동기유발.</li> <li>· 선행절에 완료형을 제약받음.</li> <li>· 후행절에 청유형, 명령형, 의문형을 제약 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연적 동기유발.</li> <li>· 선행절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쓸 수 있음</li> </ul>
이상복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유(원인), 행위연속, 때.</li> <li>· 선행절에 완료시제 ‘-았-’을 제약받음, 추정의 ‘-겠-’이 선행할 때, 후행절의 주어는 1,2 인칭만 쓸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의 추정에 의한 이유 (원인)와 당연한 결과를 나타낸다.</li> </ul>
남기십· 루코프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을 밝힘.</li> <li>· 명령형이나 청유형 선행절이 의문사 ‘왜’를 가질 수 없음</li> <li>· 약한, 변명투의, 공손하고 사교적인 표현이고, 관습상의 적합한 표현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짐.</li> <li>· 문법적 제약은 후행절이 결코 직접 의문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li> <li>· 강한 주장, 무뚝뚝한 표현이고, 고마운 이유를 따지고 드는 강한 표현이다.</li> </ul>
윤평현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인을 나타낸다.</li> <li>· 화자가 선행절의 화제에 초점을 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 개인의 추론 과정을 갖는 이유를 나타낸다.</li> <li>· 화자가 후행절의 화제에 초점을 둠.</li> </ul>
전혜영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보편적이고 진술, 정보제공.</li> <li>· 선행절에 ‘완료’의 시상을 나타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유- 개인적 판단(추측), 주장 따짐.</li> <li>· 화자의 불편을 나타냄.</li> </ul>
남기십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기][원인][때][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험’(발견), ‘이유’</li> <li>· 선행절에 회상 선어말어미 ‘-더-’ 제약받음.</li> </ul>

7) 왕정춘 (2003:15) 참조.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는 임은하(2002), 윤평현(2005), 황화상(2008) 등의 논의가 있다. 임은하(2002)는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개념과 분류를 제시하고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윤평현(2005)은 ‘-어서’와 ‘-니까’의 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화용론적 고찰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황화상(2008)은 ‘-어서’와 ‘-니까’의 의미적 특성과 후행절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육 분야의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이들은 주로 교수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왕정춘(2003), 박혜연(2007), 김지혜(2009), 김희정(2011) 등이 있다. 왕정춘(2003)은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의미·통사·화용의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한·중 인과관계 연결어미를 대조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을 밝혀 교수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중국 국내에서 출판된 교재와 한국에서 출판된 연세대학교의 교재만을 중심으로 교수방법을 제안하는 한계점을 보인다.

박혜연(2007)은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표현의 문법적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재분석을 통해 인과관계 연결표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하여 교수방안을 만들었다.

김지혜(2008)는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유 표현 오류 양상에 주목하여 이유 표현에 대한 오류 양상을 형태·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류, 담화적 오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시한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이유 표현 교수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오류 양상만으로 교수방안을 제시하는 한계점을 보인다.

김희정(2011)은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인 측면에서 ‘-어서’와 ‘-니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재의 분석을 통해서 ‘-어서’와 ‘-니까’에 적절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 인과관계의 대조 연구와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대조의 관점에서 수행된 구체적인 연구로 白蓮花(2007)는 한국어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25개 연결어미를 선택하여 인과, 시간, 조건, 양보, 목적 등의 의미에 따라 의미적·통사적 차이를 밝혀 이들을 중국어와 대조 연구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는 구정영(2007), 송엽휘(2008) 등이 논의가 있다.

구정영(2007)은 한·중 인과관계 의미표현에 대해 정의 및 분류를 상세히 제시하였고 한·중 인과표현을 대조하였다. 그리고 자로 분석을 통해 한·중 인과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타냈다. 송엽휘(2008)는 한국어의 인과관계 연결어미와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를 통사·의미적인 측면에서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장수(2011)는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에 대해 분석하여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분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의미적·통사적 분석과 함께 화용적 특징의 분석에 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교육의 효율적 구성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 인과표현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전체적인 의미 특성과 한국어 교육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중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대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한·중 대조 연구는 의미적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치중되어 있지만 통사적, 화용적 측면

에서 대조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인과 표현을 통사적, 의미적 및 화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하는 본고의 관점에 타당성을 제공한다.

###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두 언어 간에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어서’와 ‘-니까’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어서’와 ‘-니까’의 용법과 의미 기능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인과표현 ‘-어서’, ‘-니까’를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표현과 대조하여 한·중 인과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인과표현을 제대로 교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어서’, ‘-니까’에 한정하여 연결어미의 사용법과 의미적 특성을 화용적, 통사적, 의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어 인과표현과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중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교과서에 제시되는 한국어 인과관계의 표현을 정리하고 분석한다.<sup>8)</sup> 또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서’와 ‘-니까’의 화용적, 통사적, 의미적인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한다.<sup>9)</sup>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8)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어 교재는 아래와 같다.

한국어 초급1~4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2008, 경희대학교 출판국.

표준한국어 1~3, 북경대학교 2007, 북경대학교 출판사.

한국어 1~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7, 교보문고.

연세한국어 1~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0, 연세대학교 출판부.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관한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인과표현의 학습에 효과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관한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 대상,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전체적인 특징, 한국어 교육 측면, 한·중 대조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나누어 검토하겠다.

제2장에서는 인과관계 표현의 범위를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와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한국어 연결어미와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표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에서 논의의 주제인 ‘-어서’와 ‘-니까’,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를 대상으로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과관계 연결표현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각각 통사적 측면, 의미적 측면과 화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인과표현 ‘-어서’, ‘-니까’와 중국어 대표적인 인과관계 접속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각 교재에 나타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를 제시하여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에 대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자료를 종합하여 오류 양상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교재에 나타난 문제점과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중국인

---

9) 설문지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서’와 ‘-니까’에 대해 어떤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목적으로 화용적, 통사적, 의미적으로 나누며 ‘-어서’와 ‘-니까’로 만드는 20개 문제로 제시된다. 부록 <설문지> 참조.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으로서 앞에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 Ⅱ.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과관계 연결표현

### 2.1. 한국어의 인과관계 연결표현

#### 2.1.1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특징

학자들에 따라서 한국어 연결어미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여러 학자들이 한국어 연결어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임홍빈(1995), 최길시(1998), 이희자(2001), 허용 외(2005)에 따르면 연결어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연결어미란 두 개 이상의 단어나 문장이 연결될 때, 선행절의 동사에 붙어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 2) 연결어미는 한 문장을 끝맺지 아니하고 다음 문장에 연결되게 하는 어미이다.
- 3) 한 문장의 서술어나 용언을 연결형으로 만들어 다른 문장이나 용언과 이어주는 어말어미이다.
- 4) 두 문장을 연결할 때 다음에 오는 문장과 연결시키는 데 이용하는 어미이다.

국어사전은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 ‘-게’, ‘-고’, ‘-(으)며’, ‘-(으)면’, ‘-(으)니’, ‘-아/어’, ‘-지’ 따위가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를 절과 절이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기능을 갖는 어미로 정의한다. 한국어의 특성에 따라서 연결어미의 분류는 크게 형태·통사적 분류와 의미적 분류 두 가지로 나뉜다. 인과관계 연결어미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는 이중 의미적 측

면에서 연결어미의 분류를 먼저 검토할 것이다.

국립국어원(2005)과 허용 외(2005)는 연결되는 문장들 사이의 의미관계에 따라 연결어미를 10가지의 의미 범주로 나누었다. 한국어 연결어미의 종류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어 연결어미 분류 비교

국립국어원(2005)		허용 외(2005)		
의미 범주	연결어미	의미 범주	연결어미	
나열	-고, -(으)며	나열 병렬관계	-고, -(으)며	
선택	-거나, -든지	선택관계	-거나, -든지	
배경	-는데, -(으)니	배경관계	-는데, -(으)니	
이유·원인	-어서, -니까, -(으)므로, -느라고	이유관계	-어서, -니까, -(으)므로	
조건	-(으)려면, -아야/-어야	조건관계	-(으)면, -(으)려면, -아/어야	
대립·대조	-(으)나, -지만, -는데, -아/어도	대조관계	-지만, -(으)나	
인정	-아/어도, -(으)르더라도	가정 인정관계	-아/어도, -더라도	
목적	-(으)러, -(으)려고,	목적 의도관계	-(으)러, -(으)려고	
시 간	동시	-(으)면서, -자마자	시간관계	-(으)면서, -고, -다가
	순서	-고, -아/어서		
	전환	-다가		
방법 수단	방법·수단	-어서, -고	수단 방식관계	-어서, -고

이처럼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sup>10)</sup> 하나의 형태

10) 이효정(2001)에 의하면 연구마다 연결어미의 개수차이를 보이게 된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표4>과 같다.

<표4> 한국어 연결어미의 개수

가 여러 가지 의미적·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또한 별개의 형태가 동일한 의미적·통사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체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인과관계 연결표현이란 선행절이 이유나 원인이 되고 후행절에 결과가 나타나는 의미관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연결어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면서 의미관계를 만들어주는 어말어미’라고 정의내릴 수 있으며, 아울러 연결성, 비종결성, 문장 접속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2.1.2. ‘-어서’와 ‘-니까’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에 대한 화용적, 통사적, 의미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사적인 측면에서 ‘-어서’와 ‘-니까’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sup>11)</sup>. ‘-어서’와 ‘-니까’는 통사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

#### 1) 시상선어말어미 제약

먼저 시상선어말어미 ‘-었-’을 살펴보겠다.

‘-어서’는 선행절에 시상선어말어미 ‘-었-’의 제약을 받는다. ‘-어서’는 선행절에 시상어미 ‘-었-’과 결합하여 쓸 수 없다. 그리고 ‘-니까’는 선행절에

연구	주시경 (1910:83~ 87)	최현배 (1938,1982 :295)	허용 (1983:230 ~234)	권재일 (1985:46~ 51)	남기삼·교 영근 (1985,1994 :392)	윤평현(19 89:8~9)	최재희(19 91:45~21 0)
개수	51	67	32	42	29	40	35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어미의 개수에 있어서 19개에서 67개로 보는 등 견해가 다양하다.

11) 이장의 대부분 관점은 윤평현(2005)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시상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ㄱ. \*네가 많이 도왔어서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sup>12)</sup>

ㄴ. 네가 많이 도왔으니까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1 ㄱ)에서 ‘-어서’는 선행절에서 선어말어미인 ‘-었-’과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그러나 (1 ㄴ)처럼 ‘-니까’는 ‘-었-’과 결합하여 쓸 수 있다.

이어서 시상선어말어미 ‘-겠-’을 살펴보겠다.

연구자에 따라서 ‘-어서’와 ‘-니까’에 대해 ‘-겠-’의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윤평현(2005)은 ‘-어서’의 경우에 시제를 나타내는 ‘-었-’은 사용할 수 없으나 추측을 나타내는 ‘-겠-’은 사용할 수 있고 ‘-니까’의 경우에는 ‘-었-’과 ‘-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어서’의 경우에 국립국어원(2005)의 논의는 서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2) ㄱ. \*편지를 보내 주었어서 고마워.

ㄴ. \*네가 편지를 보내 주겠어서 고마운 거야.

위의 예문은 ‘-어서’의 경우에 ‘-었-’과 ‘-겠-’의 사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예문으로(2)의 문장이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 추측을 나타내는 ‘-겠-’의 사용 가능성 관계를 윤평현(2005)과 국립국어원(2005)의 논의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어서’와 ‘-니까’의 ‘-었-’과 ‘-겠-’에 대한 사용 가능성 비교<sup>13)</sup>

12) 옆에 별(\*)을 표시한 문장은 틀린 것이다.

13) ‘O’는 사용 가능한 상황이고, ‘X’는 사용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분류	‘-어서’		‘-니까’	
	‘-었-’	‘-겠-’	‘-었-’	‘-겠-’
윤평현	X	O	O	O
국립국어원	X	X	O	O

위의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를 의미하는 ‘-었-’의 사용 가능성 여부는 윤평현과 국립국어원에서 모두 일치하므로 ‘-어서’의 경우에는 과거를 의미하는 ‘-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의해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어서’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윤평현(2005)에서는 가능하다고 나타나지만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나타나고 있다.

‘-어서’는 시상선어말어미 ‘-겠-’과 같이 쓰이면 어색함을 느낀다. 문장에서 시제가 나타날 때 시상선어말어미는 선행절이 아닌 후행절과 결합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니까’는 시상선어말어미 추측의 ‘-겠-’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ㄱ. \*내일 비가 오겠어서 여행을 못 간다.  
 ㄴ. 내일 비가 와서 여행을 못 가겠다.  
 ㄷ. 내일 비가 오겠으니까 여행을 못 간다.

(3ㄱ)은 어색한 구문이다. 즉, ‘-어서’는 선행절에 ‘-겠-’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3ㄴ)에서 시제를 나타내면 ‘-겠-’이 선행절이 아니라 후행절에 놓아야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예문 (3ㄷ)에서 ‘-니까’는 시상선어말어미 추측의 ‘-겠-’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서’가 나타나는 문장에서 선행절에 추측의 ‘-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겠-’보다 ‘-을 것 같아서’로 연결하면 문장이 더 자연스럽

다.

(4) ㄱ. \*눈이 오겠어서 학교를 안 간다.

ㄴ. 눈이 올 것 같아서 학교를 안 간다.

(4ㄴ)에서 선행절에 ‘-을 것 같아서’를 사용하면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니까’는 추측의 ‘-겠-’과 같은 시상 요소와 연결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선행절에 의지를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면 자연스럽지 않다. 일반 ‘-겠으니’ 또는 ‘-ㄹ 테니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의미 전달이 자연스럽다.

(5) ㄱ.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겠으니까 신경을 쓰지 마세요.

ㄴ. 다음에 시험을 꼭 통과할 테니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의지 ‘-겠-’이 나타날 때 이루어진 문장은 비문이 되는데 예문 (5ㄱ)을 보면 ‘-니까’는 의지 ‘-겠-’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5ㄱ)보다 (5ㄴ)에서 ‘-ㄹ 테니까’와 결합하여 사용하면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 2) 선행절·후행절 주어 제약

‘-어서’와 ‘-니까’는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그리고 주어에 대한 인칭에도 제약이 없다.

(6) ㄱ. 날씨가 좋아서 우리가 산책을 갔어요.

ㄴ.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가 산책을 갔어요.

(7) ㄱ. 나나 씨는 한국어를 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

ㄴ. 나나 씨는 한국어를 잘하니까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

예문 (6ㄱ)에서 선·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서 더 자연스럽다. 선행절에 주어가 3인칭이며, 후행절에 주어가 1인칭이다. 예문 (7)에서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고 3인칭이다. 따라서 ‘-어서’와 ‘-니까’는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의 일치 여부는 상관없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인칭에 대한 제약이 없다.

### 3) 문장유형의 제약

한국어 문장의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으로 나누어진다. ‘-어서’는 후행절에 청유형, 명령형이 쓰일 수 없고, 화자의 제안이 나타나는 ‘-을까요’나 ‘-을래요’ 등등의 의문문과 함께 쓸 수 없다. 또한 ‘-어서’는 평서문에서는 잘 사용될 수 있지만 약속의 평서문에서 제약이 있어서 사용될 수 없다. ‘-니까’는 문장 형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데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에서 모두 쓰일 수 있다.

(8) ㄱ. 가을이 되어서/되니까 꽃잎이 떨어졌다.

- ㄴ. 이번 일요일에 시간이 \*없어서/없으니까 다음 토요일에 봐요.
- ㄷ. 택시가 \*와서/오니까 같이 갈 까요?
- ㄹ. 기차가 \*와서/오니까 같이 갑시다/가자.
- ㅁ. 공부를 하고 \*있어서/있으니까 조용히 하십시오/하세요/해라.

예문 (8ㄱ)을 보면 ‘-어서’와 ‘-니까’는 평서문에서는 제약이 없다. (8ㄴ)은 약속의 평서문이지만 후행절에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니까’를 사용할 수 있다. (8ㄷ)에서 의문문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택시가 왔으니까 같이 가자’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청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서’를 사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하지만 ‘-니까’는 사용될 수 있다. (8ㄷ)과 (8ㄱ)처럼 ‘-어서’는 명령형과 청유형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제약을 받고 ‘-니까’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청유형 종결어미는 ‘-(으)십시오, -자’의 형태로 나타나며, 명령형 종결어미는 ‘-(으)십시오, -세요, -아/어라’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서’는 약속의 평서문,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제안 의문문, 청유문 및 명령문에서 제약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니까’는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된다.

#### 4) 용언결합 제약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서술어에 대한 제약이 없고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9) ㄱ. 운동을 해서 땀이 난다.

ㄴ. 운동을 하니까 땀이 난다.

(10) ㄱ.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참을 수 없다.

ㄴ. 음악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참을 수 없다.

(11) ㄱ. 어제 공휴일이어서 학교에 안 왔다.

ㄴ. 어제 공휴일이니까 학교에 안 왔다.

예문 (9), (10), (11)을 보는 바와 같이 ‘-어서’, ‘-니까’의 선행절 서술어에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가 다 사용될 수 있으며 후행절의 서술어에도 제약이 없어 동사, 형용사, ‘명사’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서’, ‘-니까’의 선·후행절의 용언에 제약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상에서 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어서’와 ‘-니까’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통사적 측면에서 ‘-어서’와 ‘-니까’의 특성

통사적 특성		-어서	-니까
시상선어말어미 제약	-었-	O <sup>14)</sup>	X
	-겠-	? <sup>15)</sup>	X
선행절·후행절 주어 제약	인칭/일치성	X	X
문장유형 제약	평서문	O	X
	의문문	O	X
	청유문	O	X
	명령문	O	X
용언결합 제약	동사, 형용사, 명사	X	X

이어서, 의미적 측면에서 ‘-어서’와 ‘-니까’를 비교하고자 한다.

‘-어서’와 ‘-니까’의 의미 특성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재희(1991)는 ‘-어서’는 보편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자연스럽게 귀납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하고, ‘-니까’는 화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개인적 이유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다. 이익섭

14) ‘O’는 제약이 있음을 나타내며, ‘X’는 제약이 없음을 나타낸다.

15) ?표는 학자마다 다르다는 표시.

(2004)에서 ‘-어서’는 필연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니까’는 ‘-어서’에 비해서 필연성이 좀 더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평현(2005)은 ‘-어서’는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하는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원인을 나타내고 사건이 실재성을 갖는다고 했다. 또한 ‘-니까’는 개인이 추측해 내는 주관적 이유를 나타내고 사건의 실재성에 대해 비관여적이라고 논했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어서’와 ‘-니까’는 인과관계 연결어미로서 ‘-어서’는 원인을 나타내고 필연성이 있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킨다. 또한 ‘-어서’는 사건이 실재성을 갖는다. ‘-니까’는 이유를 나타내고 필연성이 좀 더 떨어지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그리고 ‘-니까’는 사건의 실재성에 대해 비관여적이다. 이를 다음의 예를 이용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어서’는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보다 앞서야 한다. ‘-니까’는 선행절의 사건에 의해 후행절의 사건이 뒤따르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도 있고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의 사건보다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2) ㄱ. 오늘 점심에 손님이 와서 음식을 준비했다.

ㄴ. 오늘 점심에 손님이 오니까 음식을 준비했다.

(12ㄱ)은 손님이 이미 온 경우에 발화하는데 선행절 사건이 후행절 사건보다 앞서고 이미 실현된 사실이다. (12ㄴ)은 손님이 아직 오지 않는 경우에 발화하는데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의 사건보다 뒤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어서’는 선행절 사건이 후행절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반드시 앞서 존재해야 하는 반면 ‘-니까’는 선행절 사건이 시간적으로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원인을 나타내고 사건이 실재성을 갖는다. 반면 ‘-니까’는 개인이 추측해 내는 주관적 이유를 나타내고 사건의 실재성에 대해 비관여적이다.

(13) ㄱ. 생활비가 적어서 살기가 어렵다. (원인)

ㄴ. 생활비가 적으니까 살기가 어렵다. (이유)

(13ㄱ)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상식적인 원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13ㄴ)은 ‘생활비가 부족한 것’과 ‘살기가 어려운 것’ 이라는 두 사건이 있다. 전자는 후자의 이유가 되고 후자는 전자를 배경으로 화자의 추리 판단을 유도한다. 화자는 선행절의 내용을 통해서 추론 과정을 거쳐 결과를 얻게 된다. 이처럼 ‘-어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니까’는 화자의 주관적 추측이나 판단을 제시한다.

(14) ㄱ. \*그는 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어서 그는 네 선생님이다.

ㄴ. 그는 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니까 그는 네 선생님이다.

‘-어서’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낸다. 예문(14ㄱ)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항상 선생님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서’가 쓰인 (14ㄱ)는 자연스럽지 않다. (14ㄴ)에서는 ‘-니까’가 쓰여 화자의 판단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선생님이라는 판단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 표현에서는 ‘-어서’보다 ‘-니까’를 사용해야 더 자연스럽다.

(15) ㄱ.\*네가 빨래해서 내가 청소할 것이다.

ㄴ. 내가 빨래하니까 내가 청소할 것이다.

(15)와 같은 문장은 선행절 ‘내가 빨래하는 것’과 후행절 ‘내가 청소하는 것’을 따져 본다면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화자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의한다면 이러한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어서’보다 ‘-니까’로 연결하면 문장이 성립하고 자연스럽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어서’는 원인을 나타낸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객관적이고 보편적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 반면 ‘-니까’는 이유를 나타내며 화자의 추론 과정이 주관적인 상태로 전제된다. 또한 ‘-어서’는 사건이 실재성을 갖고 있는 반면 ‘-니까’는 실재성에 비관여적이다. 이를 종합해 ‘-어서’와 ‘-니까’의 의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7>와 같다.

<표 7> 의미적 측면에서 ‘-어서’와 ‘-니까’의 특성

-어서	-니까
원인	이유
객관적이고 보편적 사실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추측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보다 앞서야 한다.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시간적으로 선행할 수 있고 후행할 수도 있다.
사건이 실재성을 갖는다.	사건의 실재성에 비관여적이다.

셋째, 화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인과표현 ‘-어서’와 ‘-니까’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용론은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어울리는 문장 표현을 찾아내는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다. 윤평현(2005)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어서’는 화자가 후행절보다 선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있고 ‘-니까’는 화자가 선행절보다 후행절에 화제

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6) 엄마: 오늘 왜 늦게 왔어?

아이: ㄱ. 길이 막혀서 늦게 왔어.

ㄴ. \*길이 막히니까 늦게 왔어.

예를 보면 엄마는 원래 ‘아기가 늦게 왔다’는 원인에 대해 잘 모르고 아이가 엄마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후에 엄마가 그 원인을 알게 된다. 즉 청자에게 ‘-어서’의 선행절은 새로운 정보이다. 따라서 ‘-니까’보다 ‘-어서’를 쓰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때 화제의 중심은 선행절에 있다.

(17) 아이: 엄마, 배가 고파요. 16)

엄마: ㄱ. 배가 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

ㄴ. \*배가 고파서 일단 밥부터 먹자.

예를 보면 ‘배가 고프다’는 것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엄마는 이미 아는 정보에 주관적인 추측이나 판단을 거쳐서 ‘일단 밥부터 먹자’는 결과를 도출한다. ‘-니까’의 선행절이 화자와 청자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 기 때문에 후행절에 화제의 중심이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서’보다 ‘-니까’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화자의 묻는 태도에 따라 대답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순탄하고 단순한 표현의 물음에 적합한 대답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추궁하는 물음이나 말에 그에 맞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

---

16) 이가(2012:23) 참조.

(18) a: 무슨 일이 있나요?

b: ㄱ. 팔이 아파서 들 수 없습니다.

ㄴ. \*팔이 아프니까 들 수 없습니다.

(18)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이다. 공손한 마음으로 묻는 물음에 (28ㄱ)처럼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화자는 후행절의 상태보다 선행절의 사실에 청자의 이해를 얻기 바란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함께 ‘어서’와 ‘-니까’는 구어에서 종결어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나 문어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19) a: 일요일에 왜 안 왔어요?

b: 학교에 일이 있으니까요(있어서요).

(20) a: 나나가 다른 사람보다 중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b: 그래. 나나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았으니까)

(19)의 대화에서 ‘-어서’와 ‘-니까’의 종결어미적인 쓰임이 나타나는데, 구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문장 중에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20)의 대화에서 격식을 갖추어 자신의 의견을 앞에 제시한 후에 그 원인이나 이유를 독립적 문장으로 제시할 때는 ‘어서’와 ‘-니까’보다 ‘-기 때문이다’와 같은 표현을 쓰면 더 자연스럽다.

위에서 살펴본 화용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서’는 화자가 선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선행절에 신정보가 나오는 반면에, ‘-니까’는

화자가 후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선행절에 구정보가 나타난다. ‘-어서’는 관습적인 인사나 사과 등의 문장에서 잘 사용되고 공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니까’는 문어나 격식체 문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데, 이는 공손이 부족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서’와 ‘-니까’는 구어체에서 종결어미적인 쓰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나 문어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 2.2. 중국어의 인과관계 접속사

### 2.2.1.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의 특징

현대 중국어에서 접속사는 허사(虚词)의 범주에 속하며, 그 범위는 연사(连词)와 일부 부사를 포함하고 있다<sup>17)</sup>. 이는 복문(复文)을 나타내는 문법 형식으로 단문과 단문의 관계(인과, 연관, 양보, 전환 등)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중국어 문장에서 복문을 나타내는 접속사의 사용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즉, 접속사가 필요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속사 하나만을 쓰는 경우 또는 여러 개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위치는 문장의 맨 앞 혹은 단문과 단문 사이, 혹은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한다.

접속사는 허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허사의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접속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중국어 접속사는 주로 관련사(关联词), 연사(连词) 허사(虚词)로 부르기도 한다. 상호관계는 허사 > 연사 > 관련사(접속사)이다.

허사(虚词): 문법어(grammatical word) 또는 형식어(form word)라고도 한다. 실사(实词)에 대립되는 말이다. 본시 중국어의 단어분류에서 실사를 뺀 모든 단어가 이에 속하며, 허자(虚子)라고도 한다. 허사는 실사의 대가 되는 개념으로 쓰이면서 자립어와 의존어의 관계에 대체로 상응한다.

연사(连词): 연결의 기능을 통해 사조(词组)와 사조, 구와 구를 연결하여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허사이다.

첫째,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 즉 접속사는 단지 단어나 단문 등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연결된 두 문법 단위 간의 여러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어떠한 수식이나 보충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21) ㄱ. 我和娜娜都会韩语。

(나와 나나는 모두 한국어를 할 줄 안다.)

ㄴ. \* 我以前和娜娜都会韩语。

(나와 나나는 다 한국어를 할 줄 알았었다.)

(21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 부사 '以前'(예전)은 접속사 '和'(와) 앞에서 수식할 수 없다. 또한 중국어 접속사는 허사의 일종으로 단독으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

둘째, 실제 어휘의 의미가 없고 단지 일정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어떤 접속사는 단독으로 사용되고 어떤 접속사는 두 개 이상을 이루어 잘 어울려 사용되며 어떤 접속사는 부사와 어울려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예와 같다.

앞뒤의 두 개가 어울려 사용되는 것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 既然…就…(…이왕이면…하겠다)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

假如(만약), 结果(그래서), 然后(그 다음에)

연사와 부사가 어울려 사용되는 것

只要…就…(…하기만 하면 된다), 只有…才…(오직…하다),

넷째, 단독으로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

중국어 접속사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접속사는 다음 <표 8>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8> 중국어 접속사 종류<sup>18)</sup>

접속사 분류		접속사와 접속표현
연합관계	선택	和 (와), 或(혹은), 或者(혹은), 要么(…하든지, 아니면 …)
	병렬	和 (와), 跟 (와), 与 (및), 及 (및), 以及 (및)
	승접	而(…면서), 于是(그래서)
	점층(递进)	不但…并且…(…뿐만 아니라…), 为了…而…(을 위해…하다), 不但…而且…(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不但, 不但…而且…(…뿐만 아니라 게다가), 何况(게다가), 尚且…何况…(…조차…게다가),
관정관계	조건	无论(을 막론하고), 不论(을 막론하고), 不管(을 막론하고), 不管…都(也)…(을 막론하고…하겠다), 只有(오직), 只有…才…(오직…하다), 只要(하기만 하면),
	인과	因为(때문에),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 因此(그래서), 因而(그래서), 既然…那么…(…이왕이면…하겠다), 既然…就…(기왕…된 바에야, …하다)
	가정	要是(만약), 要是…就(也)…(만약…하겠다), 倘若(설령), 倘若…就(也)…(설령…하겠다), 假如(만약), 如果(만약),
	전환	虽然…但是…(비록…일지라도, …하다), 可是(그러나), 虽然…可是…(비록…일지라도, …하다), 不过(그러나),
	목적	省得(…하지 않도록), 免得(…하지 않도록), 以便 (…하도록)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어 접속사는 크게 연합관계와 관정관계로 나뉘고 의미를 세분하면 병렬, 선택, 승접, 점층, 인과, 가정, 조건, 전환, 목적 등 9가지가 있다.<sup>19)</sup>

18) 서창화(2003:85~86), 류기슈(2003:961~1037), 강성조(2005:298~302) 김대성(2007:145~149) 등을 참조.

19) 중국어 접속사 종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 접속사는 용언 앞에서 쓰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으로 흔히 사용하는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표현을 예시를 통해 정리해 본다.

因为…, 所以… ~때문에,~그래서~

因为身体不好, 所以不能上课。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由于…,(因此)… ~때문에,~그래서 (문어체)

由于大家的帮助, 他很快就找到了那把钥匙。

모두들의 도움으로 그는 아주 빨리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었다.

…,因而…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 까닭에 따라서 (결과를 나타냄)

今天进城要办的事情很多, 因而一大早他就出门了。

오늘 시내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그는 외출했다.

…,从而… 따라서, 그리하여, ~함으로써

他们制定了检查制度,从而提高了工作效率和产品质量。

그들은 검사제도를 제정 했기에, 일의 능률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之所以…,是因为(是由于)… ~한 까닭은~이기 때문이다.

他之所以成绩好,是因为一直都很努力。

그의 성적이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는 다양하고, 각 표현에는

---

후치한 경우도 있다.

비슷한 의미와 용법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접속사들은 부분적으로 형태가 비슷하지만 용법이 전혀 다르거나, 형태가 다르지만 용법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다.

### 2.2.2. ‘因为…所以…’와 ‘既然…就…’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중국어 접속표현은 다양하다. 자주 사용되는 것은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 ‘由于…因此/因而…’(때문에…그래서), ‘…以致/以至于’(…으로 된다),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 ‘可见…(따라서)’ 등이 있다. 김애영(2001)에 따르면 문장에서 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선행절에 ‘因为’(때문에), ‘由于’(때문에), ‘既然(기왕이면)’를 사용하고 후행절에서 ‘所以’(그래서), ‘因而’(그래서), ‘就’(하겠다)등을 사용한다.

중국어의 대표적인 인과관계 접속표현에 대해 『现代汉语』(1997)는 중국어의 대표적인 인과관계 접속표현에는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일반적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추론의 결과를 나타낸다.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9>과 같다.

<표 9> ‘因为…所以…’와 ‘既然…就…’에 대한 연구 비교<sup>20)</sup>

분류	因为…所以…	既然…就…
[现代汉语] (1997)	설명인과관계	추론인과관계
黄伯荣(2000)	설명인과관계	추론인과관계

20) 왕정춘(2003:7~8) 참조.

	‘因为…’는 원인을 나타내고 ‘所以…’는 결과를 나타낸다.	문장의 주절에 반대의문문을 나타낼 수 있다.
房玉清 (2001)	합용이나 단용이 모두 된다.	합용이나 단용이 모두 된다.
邢福义(2001)	현실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는 일이라도 사람에게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고 모두 객관적인 상황에 출발하는 느낌이 준다.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을 비교적 강하게 주장한다.

다음으로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의 비교를 통해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인 특성을 살펴보겠다. 첫째, 통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문장 유형의 제약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에서 쓰일 수 있다. 일반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후행절에 의문사를 나타낸 의문문과 수사의문문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에서 모두 쓰일 수 있고 의문문과 수사의문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어기를 강하게 한다.

(22) ㄱ. 因为你不满意, 就摔东西? (의문문)

(만족하지 못해서 물건을 내던지냐?)

ㄴ. 你既然不满意, 就不能离开? (의문문)

(만족하지 않으면 떠나면 되잖아?)

예문 (22)를 보면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후행절에 판정의문문에 대해 제약이 없다.

(23) ㄱ. \*因为他不乐意, 你为什么还要做? (의문문)

ㄴ. 既然他不乐意, 你为什么还要做? (의문문)

(그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왜 계속 하는 거니?)

ㄷ. 你既然(\*因为)不干涉此事, 还问什么? (수사의문문)

(당신은 이 일에 간섭하지 않았는데 뭘 물어보는 거야?)

예문(23ㄱ,ㄷ)처럼 ‘因为’(때문에)는 후행절에 의문사를 나타내는 의문문이나 수사의문문에서 사용되면 비문이 된다. (23ㄴ)을 보면 ‘既然’(기왕이면)은 후행절에 의문사를 나타낸 의문문과 수사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다.

## 2) 시제에 대한 제약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과거, 미래형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의 후행절에 일반적으로 가능성, 필요성, 긍정성을 가진 ‘得, 要, 可能, 必须’ 등이 사용될 수 있다.

(24) ㄱ. 因爲秋天來了, 所以叶子都落了。

(가을이 되어서 잎이 다 떨어졌다.)

ㄴ. 既然秋天來了, 叶子就要落了。

(가을이 되니까 잎이 떨어졌다.)

(25) ㄱ. 因爲春天快到了, 所以天气暖和了。

(봄이 금방 와서 날씨가 따뜻해진다.)

ㄴ. 既然春天要到了, 天气就會暖和了。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진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시제의 제약이 없고 선행절에서 과거나 미래가 나타나는 ‘了’, ‘快’, ‘要’<sup>21)</sup>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3) 주어 일치 제약과 서술어 제약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선·후행절 동일 주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 선·후행절의 서술어 명사, 동사, 형용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6) ㄱ. 我因为起晚了, 所以没赶上车。

(나는 늦게 일어나서 기차를 놓쳤다.)

ㄴ. 既然起晚了, 我就不去了。

(늦게 일어났으니까 나는 안 갈래.)

(27) ㄱ. 因为他很可爱, 所以大家都喜欢他。

(그 애는 매우 귀여워서 모두들 그 애를 좋아한다.)

ㄴ. 既然他很可爱, 大家就会喜欢他。

(그 애는 매우 귀여우니까 모두들 그 애를 좋아할 거야.)

예문(26ㄴ)에서 동일한 주어가 나타나는데 예문(26ㄱ)에서 다른 주어가 나타난다. 그리고 (26)은 선행절의 서술어가 동사이며, (27)은 선행절의 서

---

21) 了는 조사.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쓰여 동작 또는 변화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快, 要是 부사, 곧, 머지않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술어가 명사이다. 후행절에도 동사와 형용사가 사용될 수 있다. 이어서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선·후행절에 주어와 서술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어서, 의미적인 특성을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因为’(때문에)는 원인을 나타내고 ‘所以’(그래서)는 결과를 나타낸다.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설명적인 인과관계이고 원인과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실현되지 않는 일이라도 모두 객관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既然’(기왕이면)은 이유를 나타내고 ‘就’(하겠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추론적 인과관계이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어떤 사건에 의해 화자가 주관적 판단이나 추측을 거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주관성이 비교적 강하다.

(28) ㄱ. 因为下雨了, 所以路很滑.<sup>22)</sup>

(비가 와서 길이 너무 미끄럽다.)

ㄴ. 既然下雨了, 路就会很滑.

(비가 오니까 길이 미끄러울 거야)

(29) ㄱ. 因为她要打扫卫生, 所以我不等她了.

(그녀가 청소한다고 해서 나는 그녀를 기다리지 않겠다.)

ㄴ. 既然她要打扫卫生, 那就不等她了.

(그녀가 청소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녀를 기다리지 않겠다.)

예문(28ㄱ)에서 ‘비가 온 것’은 ‘길이 미끄러움’의 원인이고 자연스럽게 결과를 나타낸다. (28ㄴ)은 화자가 ‘비가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

---

22) 왕정춘(2003:18) 참조.

에 따라서 자기의 주관적 추측을 나타낸 것이다. (28ㄱ)에서 ‘因为’(때문에)는 객관적으로 선행절에 원인을 제시하고 ‘所以’(그래서)는 후행절에 결과를 나타낸다.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일반적 설명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29ㄴ)은 선행절에서 ‘그녀는 청소한다’는 상황이 제시되고 상대방은 이 사실에 대해 주관적인 추측을 동원해하여 ‘기다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가 추론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후행절이 이미 실현된 사실임을 의미한다.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후행절이 아직 실현되지 않거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30) ㄱ. 因为身体体检, 所以我没吃饭。

(건강 검진을 받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았다.)

ㄴ. 既然身体体检, 我就不吃饭了。

(건강 검진을 받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다.)

예문(30ㄱ)에서 후행절에 ‘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이미 실현된 사실이다. (30ㄴ)에서는 건강 검사를 받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나 안 먹는 것이라는 판단이나 주장을 나타냈다.

셋째, 화용론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화제의 초점을 보면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를 나타내는 접속문에서 선행절은 듣는 사람을 모르는 사실이나 원인이고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를 나타내는 접속문에서 선행절은 청자와 화자 양자가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후행절은 말하는 사람

이 어떤 추론 결과를 나타내고 후행절이 화제의 중심이 된다.

(31) a: 我开始学法语了。(나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b: ㄱ. \*因为学了, 所以要学好。

ㄴ. 既然学了, 就要学好。(배웠으니 잘 배워야 한다.)

(31)에서 a는 b에게 정보를 주는 대화인데 b는 a가 프랑스어를 배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후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때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로 쓰지 않는다.

중국어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중국어 인과 표현 ‘因为…所以…’와 ‘既然…就…’의 비교

특성		因为…所以…	既然…就…
통사적	문장 유형 제약	후행절에 의문사를 나타낸 의문문과 수사 의문문에 제약이 있다.	후행절에 의문문과 수사 의문문에 제약이 없고 어기가 강하다.
	시제 제약	시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선·후행절 주어, 용언 결합 제약	모두 제약이 없다.	모두 제약이 없다.
의미적		‘因为’는 원인을 나타내고 ‘所以’는 결과를 나타낸다.	‘既’, ‘既然’은 이유를 나타내고 ‘就’는 결과를 나타낸다.
		설명적인 인과관계이고 단순히 객관적 상황을 제시한다. 객관성이 비교적 강하다.	추론적인 인과관계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주관성이 비교적 강하다.

화용론적	청자에게 선행절의 사건이 모르는 사실이다. 선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있다.	청자와 화자에게 선행절의 사건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후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있다.
------	---	---

### 2.3. '-어서', '-니까'와 중국어 접속표현 대조분석

'어서'와 '-니까'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화용적 맥락에 쓰이는지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어서'와 '-니까',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가 의미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교차 사용되기도 한다. 특정 맥락에서 변별적으로 사용되는 규칙도 있다.

#### 2.3.1. '-어서'와 '因为…所以…'

'-어서'와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비슷한 의미 영역을 가지지만 서로 통사적·화용적인 특징에 차이가 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먼저 '-어서'와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의 의미적·통사적·화용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첫째, '-어서'와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의 의미적 특징을 대조하겠다. 한국어 인과관계 접속문에서 '-어서'는 '시간계기, 원인·결과, 지정된 상황이나 전제, 지정된 시간, 방법, 목적' 등의 의미가 있는데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32) ㄱ.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샀다.<sup>23)</sup>

23) liulu(2013:23) 참조

(去百货店买化妆品了。)

ㄴ. 배가 고파서 밥을 세 그릇 먹었다.

(因为肚子饿, 所以吃了三碗饭。)

ㄷ. 그는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왔다.

(他在战争中活着回来了。)

ㄹ. 9시가 다 되어서 그는 집에 돌아왔다.

(快到九点的时候他才回来了。)

ㄱ. 하루 종일 걸어서 다리가 꽤 아프겠다.

(因为走了一整天, 所以腿应该很疼。)

ㅂ. 동생이 강아지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弟弟为了找小狗走遍了全国。)

(32ㄱ)의 '-어서'는 시간계기를 표시하고 (32ㄴ)의 '-어서'는 원인·결과를 표시한다. (32ㄷ)의 '-어서'는 지정된 '상황이나 전제'의 의미를 지니며 (32ㄹ)의 '-어서'는 '지정된 시간'의 의미를 지닌다. (32ㄱ)의 '-어서'는 방법을 나타낸다. (32ㅂ)는 '동생이 강아지를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녔다'의 뜻이며 이 접속문에서 '-어서'는 목적·시행을 나타낸다. '-어서'로 연결된 원인·결과 접속문은 선행절에 원인을 나타내고 후행절에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간의 선·후 순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어서'로 연결된 접속문은 어떤 때는 원인·결과와 시간계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어떤 때는 이 중의 하나가 주된 해석이 되기도 한다. '-어서'는 예문 (32)에서 보듯이, 6가지 의미를 지니는 데 반해서 '因为...所以...' (때문에...그래서)는 한 가지 의미만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시간계기와 원인·결과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어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의 인식을 전제로 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선행절 사건이나 상황은 후행절 사

건이나 상황보다 앞선다. '-어서'는 후행절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이때 화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서'가 이용된 선행절은 후행절의 이유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를 포함하는 문장은 사건이 실재성을 갖는 원인의 의미를 나타낸다.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실현된 경우, 선행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이미 실현되었지만 후행절의 결과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모두 쓰일 수 있다.

둘째, '-어서'와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의 통사적 특징을 대조해 보겠다. 통사적 특징을 주로 용언결합 제약, 선·후행절 주어 제약, 시상 선어말어미 제약, 문장유형 제약 등으로 나뉜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우선 용언결합 제약에 대해 대조해 볼 것이다.

(33) 가. 감기에 걸려서 나는 힘이 없다.

(因为感冒, 所以我没有力气。)

나.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나빠요.

(因为天气阴沉, 所以心情不好。)

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

(因为今天是星期天, 所以地铁里人很多。)

르. 길이 미끄러워서 큰일이다.

(因为路滑, 所以很麻烦。)

예문을 보면 선행절에 (33가)은 동사, (33나)와 (33르)은 형용사, (33다)

은 '명사+이다'이고, 후행절에 (33ㄱ)은 동사, (33ㄴ)와 (33ㄷ)은 형용사, (33ㄹ)은 '명사+이다'이다. 따라서 한국어 '-어서'는 선·후행절의 서술어 성질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인과 접속문에서 선·후행절의 서술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모두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 접속표현은 이러한 서술어의 성질에 제약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어서'와 중국어 접속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이 대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후행절 주어 제약에 대해 분석해 본다.

(34) ㄱ.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는 내일 출발할 것이다.

(因为天气不好, 所以飞机明天起飞。)

ㄴ. 나는 병에 걸려서 휴가를 청했다.

(我因为生病, 所以请假了。)

예문에서 (34ㄱ)은 선행절 주어 '날씨'와 후행절 주어 '비행기'가 다르고 3인칭이다. (34ㄴ)은 동일한 주어이며 1인칭이다. 따라서 '-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칭에 대한 제약도 없음을 볼 수 있다. 중국어 예문을 보면 중국어 접속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주어와 인칭에 관한 제약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어서'와 중국어 접속표현이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과 대응할 수 있다.

다음에는 시상선어말어미 제약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35) ㄱ. \*나나는 숙제를 잘 했어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다.

(因为娜娜作业做得好, 所以受到了老师的表扬。)

ㄴ. \*오늘 밤에 손님이 오겠어서 집에 있을 것이다.

(因为今天晚上有客人要来, 所以会在家。)

예문(35)을 통해 ‘-어서’는 시상선어말어미 ‘-었-’, ‘-겠-’와 결합하여 모두 사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어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 이유가 되므로 완료시제 ‘-었-’과 연결하면 중복되어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어서’와 ‘-겠-’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sup>24)</sup> 중국어 예문을 보면 중국어 인과 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시제에 관한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는 문장유형 제약에 대해 대조해 본다.

(36) ㄱ. 말을 많이 해서 목이 말랐다. (일반 평서문)

(因为说了很多话, 所以口渴。)

ㄴ. \*2시에 보면 너무 늦어서 1시에 봐요. (약속 평서문)

(两点见面太晚了, 一点见吧。)

‘-어서’는 일반 평서문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어서’는 약속을 나타내는 평서문에서 제약이 있다. 예문 (36ㄴ)처럼 약속하는 평서문이 명령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약속의 의미를 갖는 평서문에서 ‘-어서’는 사용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중국어 접속문을 보면 중국어 인과 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일반 평서문에서 잘 쓰일 수 있는데 약속의 의미를 지닌 평서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7) ㄱ. 논문을 써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니?

24) 윤평현(2005)와 국립국어원(2005)에서 ‘-어서’의 경우에 ‘-겠-’의 사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서로 다르다.

- (你是因为写论文, 所以没时间见朋友吗?) (일반 의문문)
- ㄴ. \*일이 생겨서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因为事情发生了, 后悔有什么用呢?) (수사의문문)
- ㄷ. \*목이 말라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까요?  
(\*口渴了, 要吃冰淇淋吗?) (제안 의문문)
- ㄹ. \*시간이 있어서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어때요?  
(\*有时间, 一起去看电影怎么样?) (제안 의문문)

예문을 보면 ‘-어서’는 일반 의문문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지만 수사 의문문이나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제안 의문문에서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예문 (37 ㄴ)을 보면 ‘因为’(때문에)는 일반 의문문에서 제약이 없지만 후행절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수사의문문에서 제약받는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의문문에서는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제안 의문문은 청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선행절과 후행절은 각각 단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 (38) ㄱ. \*그 영화는 재미있어서 같이 갑시다.(청유문)  
(那部电影很有意思, 一起去看吧。)
- ㄴ. \*아이가 이미 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명령문)  
(孩子已经睡了, 请不要大声说话。)

위의 예문(38)에서 ‘-어서’는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제약을 받고 사용될 수 없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예문을 보면 중국어 접속사 ‘因为’가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刘月华(2004)에서는 중국어의 의문

문, 명령문, 청유문은 단문에 속하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중국어 접속표현에 청유형과 명령형을 나타내는 문장에는 접속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한국어와 중국어 접속사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셋째, 화용적인 특성에 따라 ‘-어서’와 중국어 접속표현의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9) a: 왜 아이가 겁났니?

b: ㄱ.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는 겁났어.

ㄴ. 因为雷声太响, (所以)小孩很害怕。

(39)에서 b는 화제의 초점이 선행절 ‘천둥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어서’는 선행절을 화제의 중심으로 둔다. 중국어 접속문에서 설명적 인과 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선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있다. 원인을 강조하면 선행절에 ‘因为’(때문에)만 쓰고 후행절에 ‘所以…’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서’는 ‘因为’(때문에)와 서로 대응할 수 있다.

(40) 선생님: 왜 수업에 지각했어? (为什么上课迟到了?)

학생: ㄱ.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했습니다.

ㄴ. 因为早上起床晚了, 所以迟到了。

예문 (40)은 학생이 수업에 지각했는데 선생님이 그 원인을 물어보고 학생이 대답하는 것이다. ‘학생이 지각한 것’에 대한 원인은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다. 학생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의 사실을

제시하고 공손하게 그 원인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원인을 제시한다. 중국어 인과 접속문에서 선행절의 사건을 청자가 모르는 사실이다.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원인을 강조하고 결과를 나타낸다. ‘-어서’는 중국어 인과 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대응될 수 있다.

한국어 인과관계 접속문에서는 연결어미가 꼭 있어야 하지만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문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경우나 구어체에서 선·후행절의 인과 접속사가 생략될 수 있다. 예문을 보면 ‘-어서’에 대응하는 중국어 인과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생략됨을 알 수 있다.

(41) ㄱ. 만나서 반가워요.

(很高兴见到你。)

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光临。)

ㄷ. 일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对不起, 我做错了。)

‘-어서’는 청자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며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공손하고 사교적인 느낌을 주게 된다. 예문을 보면 인사, 감사나 사과 등의 경우에 ‘-어서’가 많이 사용되고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중국어 인과 표현은 이런 경우의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어서’와 중국어 접속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을 대조 분석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사적 측면에서 ‘-어서’는 시상어미 ‘-었-, -겠-’와 결합할 수 없고 약속 평서문, 제안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에서 사용될 수 없다. 중국어 접

속표현은 청유문, 명령문,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의문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어서'는 여러 가지 통사적 제약이 있는 반면에 '-어서'와 대응하는 중국어 접속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제약이 적다고 볼 수 있다.

2) 의미적 측면에서 '-어서'는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서로 대응할 수 있다. '-어서'는 보편적인 사실을 서술하고 객관적인 원인을 나타내며 선·후행절의 사건이 실재성을 갖는다. 중국어 접속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설명적 인과관계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한다. 후행절의 사건은 이미 실현된 사실이다.

3) 화용적인 특성을 보면 '-어서'는 선행절에 화제의 초점을 두고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선행절에 화제의 초점을 둔다. 따라서 '-어서'는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대응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어서'는 사교적 표현이고 공손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사, 사과, 감사 등의 경우에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 인과 표현은 이런 의미가 없고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2.3.2. '-니까'와 '既然...就...'

첫째, 의미적 측면에서 '-니까'와 중국어 접속표현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42) ㄱ. 수업이 있다고 하니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既然说有课, 那就无法参加会议。)

ㄴ.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니까 칭찬을 받을 것이다.

(他既然做了好事, 就会受到称赞。)

예문(42ㄱ)을 보면 선행절에 ‘수업이 있는 것’은 후행절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42ㄴ)에서 선행절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것’은 후행절 ‘칭찬을 받는 것’의 이유가 되고 화자가 주관적 판단을 통해 그런 결과를 추측한다. 따라서 ‘-니까’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이유를 나타내고 화자가 주관적 판단을 통해 결과를 추측한다. 예문을 통해 ‘-니까’는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와 잘 대응함을 알 수 있다.

(43) ㄱ. 학생들이 왔으니까 수업을 할 수 있다.

(既然学生们来了, 就能上课了。)

ㄴ. 학생들이 오니까 수업 할 준비를 한다.

(既然学生们要来, 就准备上课。)

예문(43ㄱ)은 선행절 사건이 후행절 사건보다 앞서 발생하는데 이는 화자 개인의 추측을 나타낸다. 예문(43ㄴ)은 후행절 사건이 선행절 사건보다 앞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니까’는 선행절의 사건이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건의 실재성에 비관여적이다.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후행절이 아직 실현되지 않거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다. 예문을 통해 ‘-니까’는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와 잘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통사적 측면에서 한국어 인과 표현 ‘-니까’는 ‘-어서’보다 제약이 적다. ‘-니까’가 중국어 인과 표현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예문을 통해 살펴도록 한다.

먼저 용언결합 제약에 대해 분석한다.

(44) ㄱ. 바다를 보러 가니까 기분이 좋다.

(既然去了看大海, 心情就会很好。)

ㄴ. 집에서 학교까지 머니까 버스를 타고 다닌다.

(既然家到学校很远, 就坐公交车去。)

ㄷ. 지금은 출근 시간이니까 택시를 타는 사람이 많다.

(既然现在是上班时间, 坐出租车的人会很多。)

ㄹ.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큰일이네요.

(既然没好好处理事情, 就会出大事。)

예문에서 선행절에 (44ㄱ), (44ㄷ)의 서술어는 동사, (44ㄴ)은 형용사, (44ㄷ)은 '명사+이다'이고 후행절에 (44ㄴ)은 동사, (44ㄱ)와 (44ㄷ)은 형용사, (44ㄷ)은 '명사+이다'이다. 따라서 한국어 '-니까'는 선·후행절 서술어의 성질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중국어 인과 접속문에서 선·후행절의 서술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접속표현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서술어의 성질에 제약이 없다. 따라서 '-니까'는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와 잘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선·후행절 주어 일치 제약에 대해 대조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45) ㄱ. 겨울이 오니까 눈이 온다.

(既然冬天来了, 就会下雪。)

ㄴ. 당신은 경험이 많으니까 이번의 일을 성공시켰다.

(既然你经验丰富, 这次的事就肯定能成功。)

예문(45ㄱ)은 선·후행절 주어가 일치하지 않고 3인칭이다. (45ㄴ)은 주어가 동일하고 2인칭이다. 따라서 '-니까'는 선·후행절의 주어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인칭에 대한 제약이 없다. 중국어 인과 접속문을 보면 주어와 인칭

에 관한 제약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니까’는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와 잘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상선어말어미 제약에 대해 대조해 볼 것이다.

(46) ㄱ. 이 일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既然这件事还没有结束, 你就得更加努力做事。)

ㄴ. 모르겠으니까 다시 물어 봐.

(既然还不清楚, 就再问一下。)

예문 (46)을 보면 ‘-니까’는 ‘-었-’, ‘-겠-’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예문을 보면 중국어 접속표현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시제에 관한 제약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니까’는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와 잘 대응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는 문장유형 제약에 대해 분석해 본다.

(47) ㄱ. 노래를 잘 부르니까 너에게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 (평서문)

(既然你歌唱得好, 我就给你一次机会。)

ㄴ. 눈이 왔으니까 역시 여행을 갈 거니? (의문문)

(下雪了, 还要去旅行吗?)

ㄷ.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커피 한잔 먹으면 어때요? (제안 의문문)

(还有很多时间, 一起去喝杯咖啡怎么样?)

ㄹ. 설악산이 아름다우니까 같이 여행을 가자. (청유문)

(雪岳山很美, 一起去旅行吧。)

ㅁ.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해라. (명령문)

(时间还很充足, 慢点做。)

예문(47)에서 ‘-니까’는 모든 문장유형에 적용하고 제약이 없다. 중국어 예문을 보면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서 접속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용법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접속표현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화용적인 특성에서 ‘-니까’가 중국어 인과 표현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48) a: 저 사람의 얼굴이 무서워요.

b: 네, 저 사람의 얼굴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이는 얼굴만 바도 울 것이다.

(那个人长得太吓人, 小孩只要看到脸就会哭。)

예문 (48)에서 b는 ‘저 사람의 얼굴이 너무 무섭다는 것’에 근거하여 화제의 초점을 후행절에 두고 결과를 추측한다. 즉 ‘-니까’는 후행절에 화제의 중심이 있다. 중국어 접속문에서 추론적 인과 표현 ‘就’(하겠다)는 후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있기에 ‘-니까’와 잘 대응한다.

이상과 같이 ‘-니까’와 중국어 접속표현을 대비해 살펴보았다. ‘-니까’는 통사적으로 제약이 거의 없으며, 중국어 접속표현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 또한 통사적 제약이 거의 없다. 의미적 측면에서 ‘-니까’는 이유를 나타내고 화자의 주관적인 추론을 나타내며,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추론적 인과관계와 화자 주관적 주장이나 판단을 나타낸다. 단지 ‘-니까’는 사건의 실재성에 비관여적이다. 따라서 ‘-니까’는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와 잘 대응할 수 있다. 화용적인 측면을 보면 ‘-니까’는 선행절이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후행절에 화제의 초점을 두고 있다.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후행절이 화제의 중심이 된

다. 따라서 ‘-니까’는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와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니까’는 공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사, 사과, 감사 등의 사교적인 문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인과 표현은 이런 화용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 Ⅲ. 교재분석과 오류분석

#### 3.1. 교재분석

교재란 해당 교육 기관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과정 등을 근간으로 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도구이며, 교수·학습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과정이라도 교재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가시화되지 않으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재는 교육 과정의 구현체이며, 수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sup>25)</sup>

한국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각 대학교에서 다양한 교재들을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교재에 따라서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목록과 교수 내용이 다르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된 교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는 한국에서 흔히 쓰는 고려대학교 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 경희대학교 한국어와 중국에서 출판된 북경대학교 표준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각 교재에서 나타난 인과관계 연결표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고려대학교 한국어는 초급에서 ‘-어서’, ‘-니까’가 나타나고 중급에서 ‘-기 때문에’, ‘-었더니’, ‘-느라고’가 나타난다.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는 다양한 인과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어서’, ‘-니까’, ‘-기 때문에’는 초급에서, 중급에서 ‘-느라고’, ‘-더니’, ‘-는 바람에’ 등이 나타난다.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에서는 ‘-니까’, ‘-어서’, ‘-기 때문에’ 등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어서’에 대한 설명은 원인과 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니까’에 대한 설명은 계기와 이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중급에서 ‘-더니’, ‘-느라고’, ‘-었더니’, ‘-(으)므로’, ‘-는 바람에’를 다루고 있다. 북경대학교

25) 김영만 (2005:139) 참조.

‘표준 한국어’는 초급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어서’와 순서를 나타내는 ‘-어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유를 나타내는 ‘-니까’를 제시하고 있다. 중급에서 ‘-기 때문에’, 계기를 나타내는 ‘-니까’, ‘-느라고’를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각 학교 교재에서 제시된 인과관계 연결어미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북경대(중국)
초급1	-어서(이유/원인)	-어서(순서/계기) 어서(이유/원인) -(으)니까(이유/원인)		-어서(원인) -니까(이유)
초급2	-니까(이유/원인)	-어서 그런지(추측) -니까(경험/발견) -(으)르테니까	-어서(순서/계기) -어서(이유/원인) -(으)니까(이유/원인)	-어서(순서)
중급1	-어서 그런지, -(으)로 인해 서 -느라고	-(이)라서(이유/원인) -고 해 -다니까(이유/원인) -고 하니까(이유/원인)	-고 나서 -ㄴ/는 거니까(이유/원인) -(으)ㄴ/는 걸 보니까(추측) -어차피 -(으)니까	-니까(계기)
중급2		-그러고 보니(발견) -고 보니(발견)	-고 해서/하도 -다고 해도 -(으)르겔 해서 -어서 그런지 -을까 봐서(의지/추측) -다(가) 보니까(상황 전환) -(으)르테니까(의지/추측)	-느라고

표에서 나타난 대로, 각 학교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표현에는 ‘-어서’, ‘-니까’, ‘-기 때문에’, ‘-느라고’, ‘-(으)므로’, ‘-더니’, ‘-었더니’, ‘-는 바람에’, ‘-(으)로 인해’, ‘-길래’, ‘-(으)로 말미암아’, ‘-니까요’ 등이 있다. 특히 교재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인과표현은 초급 단계에 ‘-어서’와 ‘-니까’가 있고 중급 단계에 ‘-느라고’ 등이 있다. 그리고 연세대

와 북경대는 ‘-어서’와 ‘-니까’의 용법과 의미 기능에 의해서 교재에서 두 번을 제시했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어휘도 매우 부족해서 ‘-어서’와 ‘-니까’의 특성을 한 번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연세대와 북경대는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를 나누어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어서’와 ‘-니까’의 분포 상황, 문법 설명을 살펴보고 그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12> ‘-어서’의 교재 제시 상황

대학	분포 상황	문법 설명
고려대	한국어 1 제8과	<p>*-아/어/여서expresses the reason for something.</p> <p>*-아/어/여서is attached to either a verb stem or an daiective stem, and it takes one of three forms depending on the last vowel of the stem.</p> <p>*When connecting two sentences having past tense, -아/어/여서 is attached directly to the verb stem in the previous sentence. That is, the first verb does not need the past tse marker-았/였/였-. The tense of the entire sentence is expressed by the tense of the second verb.</p> <p>*In sentences with -아/어/여서, the second sentence cannot be a command or a propositive("let's~")sentence.</p>
연세대	한국어 1 제7과	<p>*This connective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that the action of the first clause is the reason for the action of the second clause. The second clause cannot contain an Imperative or a propositive(let's). ‘-였/았/였-’and ‘-겠-’ cannot be used in front of ‘-어서/아서/여서’.</p>
경희대	한국어 2 제13과	<p>*This ending is used when the preceding clause is the reason of following clause.</p> <p>*You cannot use the ending of preceding clause with tense marker. You can not use imperative and suggestive endings</p>

		in the following clauses of ‘-아/어서’. ‘-아/어서’ represents general causes or reasons. If a predicate of the preceding clause is ‘-이다’, the form ‘-이라서’ is also used.
북 경 대	한국어 1 제24과	*원인을 나타낸다. * 동사, 형용사 어간에 붙어 쓰임. *시제 선어말어미와 붙어 쓰이지 않음.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쓰이지 않음. *‘명사+이다’ 뒤에서 ‘-어서’ 대신 ‘-라서’가 쓰인다.

<표 13> ‘-니까’ 의 교재 제시 상황

대 학	분포 상황	문법 설명
고 려 대	한국어 2 제4과	*-(으)니까 is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noun+이다’, indicating a reason or a cause. *-(으)니까 is usually used in an imperative or a propositive sentence or a sentence that shows a speaker’s determination or hope. *This takes two forms. a. If the stem ends in a vowel or ㄹ, -니까 is used. b. If the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으니까 is used.
연 세 대	한국어 1 제7과	*This connective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the reason or cause of the next clause. when the verb ends in a vowel, use ‘-니까’. when it ends in a consonant, use ‘-으니까’.
경 희 대	한국어 2 제9과	*This ending is used when a preceding clause represents a reason for a following clause. *The forms of verbs are usually imperative and suggestive in the following clause. The tense marker can be attached before ‘-(으)니까’. The reason that ‘-(으)니까’ represents mainly stems from a speaker’s own thoughts or experiences.
북 경 대	한국어 1 제24과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 *용언, ‘체언 + 이다’ 어간, 그리고 시제 선어말어미와 붙어 쓰인다.

위의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세대와 북경대는 '-어서'와 '-니까'를 같은 과에서 제시하는 반면 고려대와 경희대의 경우는 따로 제시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어서'와 '-니까'의 유사점이 많고 구분이 힘들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같은 과에 제시하면 서로 비교·대조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교재는 문법 항목에 대해 해석이 영어로 설명되고 있어서 영어권 이외의 학습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된 문법 항목 해석을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교재는 문법에 대해 설명하는 반면에 북경대 교재는 비교적 간략한 문법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어서'와 '-니까'의 제시 형태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대는 '-니까'와 '-으니까'를 구별하여 제시했고 경희대는 '-으니까'로만 제시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아서/어서/여서'로 구분했고 경희대와 북경대는 '-아서'와 '-아/어서'의 형태로 제시했다. 이렇게 문법 형태들을 각 교재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표현 방식으로 규정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 3.2. 오류분석

앞에서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와 함께 실제로 중국인 학습자가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를 어떻게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하겠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를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

인 교수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3.2.1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초급부터 중급까지의 중국인 학습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가 사용된 문장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하나를 택일하는 객관식 문제 20개로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는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본 설문지는 학습자가 정확히 알고 문제에 대한 답을 선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정하기 위해 같은 유형의 문제를 2개씩 제시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2문제 중의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오답으로 처리했다.<sup>26)</sup>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각 단계별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서'와 '-니까'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문제는 총 20개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출제했다. 설문 문항의 내용은 다음 <표 14>과 같다.

<표 14>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설문 조사 내용

분류	특성	설문문제
통사적	청유문 제약	시간이 (없어서; 없으니까) 빨리 내립시다. 저 식당이 (맛있어서; 맛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자.
	명령문 제약	아이가 공부를 (해서; 하니까) 조용히 해라.

26) 예를 들어 ‘아이가 잠을 (자서; 자니까) 조용히 해라’는 정답을 맞췄는데 같은 유형의 문제인 ‘이 드라마는 (재미있어서; 재미있으니까) 꼭 보세요’는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면 오답으로 처리했다.

		이 영화는 (재미있어서; 재미있으니까) 꼭 보세요.
	의문문 제약	집에 반찬이 (없어서; 없으니까) 나가서 먹을까요? 날씨가 (더워서; 더우니까) 우리 시원한 계곡에 갈까요?
	평서문 제약	내가 많이 (도와줘서; 도와줬으니까)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이번 주는 시간이 (바빠서; 바쁘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시상 '-겠-' 제약	오늘 비가 (오겠어서; 오겠으니까) 밖에 가기 싫어요. 내일 시험을 (하겠어서; 하겠으니까) 공부를 했어요.
	시상 '-었-' 제약	머리가 (아팠어서; 아팠으니까) 학교에 안 갔어요. 어제 열심히 (공부했어서; 공부했으니까) 시험 잘 봤을 거야.
의미적	객관적 의미	가: 강남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나: 쇼핑몰이( )그래요. A. 많아서 B. 많으니까  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나: 제가 학원에( )주말에 일이 많아요. 가: 아 그럼 주말은 안 되겠군요. A. 다녀서 B. 다니니까
	주관적 의미	가: 피곤해 보인다. 나: 어제 밤에 1 시간도 ( ) 죽을 것 같아. A. 못자서 B. 못자니까  가: 저 영화를 ( )저도 단풍을 보러 가고 싶어요. 나: 그래 그럼 같이 보러 갈까? A. 봐서 B. 보니까
화용적 27)	공손한 표현	가: 철수 씨 오늘 왜 늦었어요? 나: 늦게 ( ) 늦었어요. A. 일어나서 B. 일어났으니까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사장님을 만날 일이 ( ) 왔습니다. A. 있어서 B. 있으니까
	관습적 표현 <sup>28)</sup>	초대해 (주셔서;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늦어서; 늦으니까) 죄송합니다.

27) 윤평형(2005), 남기심·루코프(1983)에 의거하며, '-아서'와 '-니까'의 화용적 특성을 공손한 표현, 관습적 표현 이렇게 2개 유형을 만들었다.

28) 국립국어원(2007)은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등과 함께 관용적으로 자주 쓰이는 인사말

### 3.2.2. 조사 결과 분석

본 설문은 총 40명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어 수준에 따라 초급 학습자 20명과 중급 학습자 20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설문 결과에 기초하여 초급, 중급 학습자그룹 각각의 정답률을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인 측면으로 정리했다. 우선 초급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다음 <표 15> 과 같다.

<표 15> 초급 한국어 학습자 조사 결과 분석

분류	특성	정답률	정답수
통사적	청유문 제약	60%	12
	명령문 제약	75%	15
	의문문 제약	65%	13
	평서문 제약	15%	3
	시상 '-겠'제약	35%	7
	시상 '-었'제약	45%	9
의미적	객관적 의미	55%	11
	주관적 의미	10%	2
화용적	공손한 표현	65%	13
	관습적 표현	70%	14

위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초급 학습자는 통사적 특징 중 명령문 제약에 대한 정답률이 75%로 가장 높았고, 청유문 제약에 대한 정답률이 60%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평서문 제약에 대한 정답률은 15%로 가장 낮았다. 이는 약속의 평서문이 청유문이나 명령문처럼 형태상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종결어미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통사적 제약을 제시할 때 약속 평서문 제약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이를 학

---

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에 '-니까'는 쓸 수 없고, '-어서'를 써야 한다고 했다.

습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의미적 특징에 대해서는 객관적 의미에 대한 정답률이 55%로 가장 높았고, 주관적 의미가 10%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처럼 초급 학습자는 주관적 추론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의미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의미적 차이를 제시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화용적 특징에 대해 공손한 표현의 정답률이 65%로 나타나고, 관습적 표현은 공손한 표현과 비슷하게 70%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초급 학습자들이 화용적 특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으며 관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화용적 특징에 대한 초급 학습자들의 이해가 빠름을 나타내며, 수업 시간에 화용적 특징을 어려운 부분으로서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에 중급 학습자들의 정답률을 다음<표 16> 과 같다.

<표 16> 중급 한국어 학습자 조사 결과 분석

분류	특성	정답률	정답수
통사적	청유문 제약	75%	15
	명령문 제약	90%	18
	의문문 제약	55%	11
	평서문 제약	25%	5
	시상 '-겠'제약	55%	11
	시상 '-었'제약	60%	12
의미적	객관적 의미	55%	11
	주관적 의미	40%	8
화용적	공손한 표현	85%	17
	관습적 표현	100%	20

위의 <표 16>를 보는 것처럼 중급 학습자는 통사적 특징에서 명령문 제약에 대한 정답률이 90%로 가장 높았고, 청유문 제약이 75%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평서문 제약이 25%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여기서 중급 학습자는 초급 학습자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시 약속의 평서문에서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오류를 많이 범한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통사적 제약을 제시할 때 더욱 더 유의하여 강조하면서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의미적 특징에 대해 객관적 의미가 55%로 주관적 의미가 40%로 정답률을 비슷하게 나타낸다. 즉 이 부분을 중급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 보다 비교적 잘 알고 구분하고 있음이 나타낸다.

또한 화용적 특징에 대해 공손한 표현의 정답률이 85%로 나타났고, 관습적 표현이 100%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서 중급 학습자들이 초급 학습자와 같이 화용적 특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화용적 특징을 어려운 부분으로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 ‘-니까’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징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를 초급과 중급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인식과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 분석해 보았다.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 ‘-니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급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보다 잘 이해하고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또한 중급 학습자가 관습적 표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평서문 제약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중급 중국인 학습자에게 모두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학습자들이 ‘-어서’와 ‘-니까’의 특징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서’와 ‘-니까’를 두 유형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중국인 학습자 '-어서'와 '-니까'의 정답수

분류	특성	'-어서'로 답한수	'-니까'로 답한수	총 정답수	정답률
통사적	청유문 제약	13	27	27	67.5%
	명령문 제약	7	33	33	82.5%
	의문문 제약	16	24	24	60%
	평서문 제약	32	8	8	20%
	시상 '-겠'제약	22	18	18	45%
	시상 '-었'제약	19	21	21	52.5%
의미적	객관적 의미	22	18	22	55%
	주관적 의미	20	10	10	25%
화용적	공손한 표현	31	9	31	77.5%
	관습적 표현	33	7	33	82.5%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서'와 '-니까'의 특징에 대해 명령문 제약과 관습적 표현의 정답은 33개로 가장 많고, 공손한 표현은 31개로 두 번째로 많으며, 세 번째는 청유문 제약이 24개를 기록하였다. 여기서 '-어서'와 '-니까'의 10개 특징 중 7개의 정답률은 50%를 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어서'와 '-니까'의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약속의 평서문의 정답은 8개로 가장 낮다. 이는 학습자들이 약속의 평서문 제약에 대하여 생소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약속의 평서문 제약을 제시할 때 더욱 더 유의하여 강조하면서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용적 특징에 대한 정답률은 비교적 높았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화용적 특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설문 결과를 통해서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가 인과관계 연결어미 '-

어서’, ‘-니까’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 화용적 특징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실제 수업시의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는 ‘-어서’의 통사적 특징 중에 약속 평서문 제약에 관한 오류에 취약하다. 따라서 ‘-어서’의 통사적 제약을 제시할 때 약속 평서문 제약에 관한 내용을 강조해야 하고 이를 학습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초급 학습자는 ‘-니까’가 가지는 주관적 추론의 의미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 즉 ‘-어서’와 ‘-니까’의 의미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서’와 ‘-니까’의 의미적 차이를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다. 설문 분석 결과 피험자인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는 ‘-어서’와 ‘-니까’의 화용적 특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어서’와 ‘-니까’의 화용적 특징을 어려운 부분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 IV. 인과관계 연결어미 교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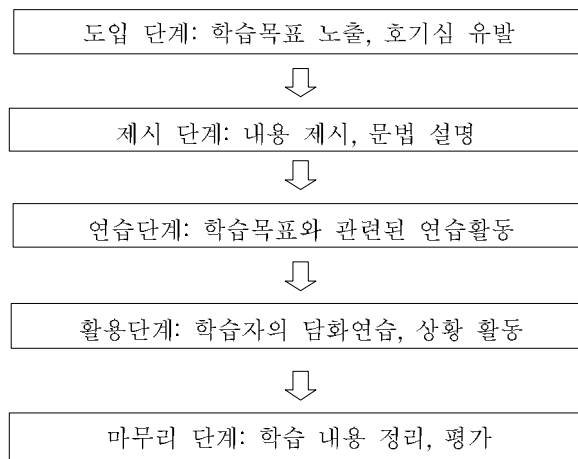
### 4.1 수업 지도 모형

지금까지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통사적·의미적·화용적 기능을 살펴보고 중국어와의 대조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표현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한국어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문장을 연결할 때 생기는 오류 양상을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연결어미 교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외국어 문법 교육을 하는 이유 중 핵심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다.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문법적 능력, 담화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나눌 때, 의사소통 능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문법적 능력이 꼽힌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 문법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

김유정(1997)에 따르면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모범적인 수업 구성은 도입(Warm),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활용(Use), 마무리(Follow-up)의 5단계로 구성된다. 도입 단계는 학습자에게 학습목표를 노출시켜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할 문법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되며 학습자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다음으로, 제시 단계는 담화·화용적 맥락에서 목표가 되는 문법 항목을 인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상황을 통한 예문으로 그 학습 목표를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습 단계는 본문이나 대화문을 읽고 보는 연습, 형태적인 교체 연습, 문법 형식, 문형 연습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익숙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목표와 관련

된 간단한 대화, 문형연습을 통한 짝 활동 등이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 활용 단계는 실제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상호적으로 의사소통이 만들어가는 단계이다. 여기서 자료나 과제는 실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짝 활동이나 그룹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마무리 단계는 학습목표에 대한 성취도를 점검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며, 과제를 주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2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09)에<sup>30)</sup>의하면 도입(Warm up)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학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 수업으로 넘어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 날의 학습 내용을 이끌어낸다.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할 문법 항목을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이때 유의적인 질문을 통해 학습 항목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무의식중이지만 학습할 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된다. 이

29) 양화(2012:37) 참조

30) 본 연구는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09:133~134)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여 참조했다.

단계에서는 호기심 유발이 아주 중요하다.

제시(Presentation) 단계에서는 그날 학습할 내용과 목적을 주어진 대화문이나 문맥을 통해서 제시하고 이후 연습 단계에서는 그날 학습할 내용을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교육한다. 학습자에게 문법 구조의 형태와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형태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연습 단계로 가기 전에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단계이다. 이때 다른 문법 수업보다 연결어미에 대한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교사는 수업 준비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입장이 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하며 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에 대한 차이점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연습(Practice) 단계는 문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시 단계에서 이루어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법 항목의 고르기, 밑줄 긋기, 빈 칸 메우기, 틀린 부분 고치기 등의 통제된 연습과 문법 항목을 활용한 문장 완성하기, 재배열하기, 대화 완성하기 등의 유도된 연습 등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구조적 연습과 유의적 연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문법 항목들의 사회적 · 담화적 기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학습자들이 많은데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비교 · 대조하여 상황과 제약 중심으로 설명하고 예문도 직접 만들어 보게 해야 한다.

활용(Use) 단계에는 앞으로 연습할 것들을 과제로 통합해서 실제로 사용해 본다. 활용 단계의 연습은 실세계의 상황을 자료로 활용하고 배운 문법을 적용하여 이야기하기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배운 문법을 활용한 역할극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목표한 연결어미가 많이 쓰일 수 있는 주제를

주어 자유롭게 써 보게 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적절한 활동이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 교사에 의한 오류 수정이 많으면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의사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실제 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활동 후에 교사는 학생들의 역할극이나 작문한 것을 보충하고 잘된 것은 칭찬해 주며 오류가 있는 것은 수정해 준다. 자유롭게 문장을 만들어 보고 연습하여 교실 밖에 나가서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배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무리(Follow up) 단계는 우선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와 함께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 단계에서 문법 설명을 위해 들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과제를 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다.

## 4.2 교수 방안

지금까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을 의사소통 중심 수업의 5단계 수업 모형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연결어미 교육을 5단계 수업모형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학습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어서’와 ‘-니까’를 교사의 발화든 학습자의 발화에서 이끌어내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사는 만든 이야기나 준비된 질문을 통해 기대하는 문장이나 어휘를 학습자에게서 얻어내야 한다.

예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본시에 배울 내용을 노출한다.

교사 : 나나 씨, 어제 왜 숙제를 안 했어요?

학생 : 몸이 아팠어요.

교사 : 아~ 몸이 아파서 숙제를 안 했군요. 왜 몸이 아팠어요?

학생 : 비를 맞았어요.

교사 : 네, 비를 맞았으니까 몸이 아프지요.

교사는 학생이 발화한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말한 후 ‘-어서’와 ‘-니까’ 로 연결한 문장을 다시 제시한다. 칠판에 판서한다.

① 몸이 아팠습니다. 숙제를 안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숙제를 안 했습니다.

② 비를 맞았습니다. 몸이 아픉니다.

→비를 맞았으니까 몸이 아프지요.

제시 단계에서는 목표했던 연결 어미인 ‘-어서’와 ‘-니까’를 주어진 대화 문이나 문맥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게 해야 한다. 교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목표하는 문법을 ‘문법·의미·담화’의 차원에서 모두 설명해야 한다.

1) '-어서'의 예시

(1) 형태: S -아서/어서;

동사, 형용사 + -아서/어서 어간이 'ㅏ, ㅑ'로 끝나면 '아서'가 붙고, 그 외의 'ㄷ, ㅌ, ㅓ, ㅣ'에는 '어서'가 붙는다. (用于动词, 形容词后, 词干以'ㅏ, ㅑ'结尾的话, 用'아서', 除此以外的'ㄷ, ㅌ, ㅓ, ㅣ'都用'어서'.)

ex) 오다 : 오 + 아서 ⇒ 와서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했다.

ex) 버티다: 버티+어서⇒ 버텨서 끝까지 버텨서 성공했다.

(2) 통사적 제약

통사적 제약<sup>31)</sup>

통사적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		주어제약		용언제약		문장형태제약		
	-었-	-겠-	일치	인칭	선행절	후행절	명령형	칭유형	의문형
-어서	+	?+	-	-	-	-	+	+	+

ㄱ. 不可以在前句和表示时态的助词连用, 在表示时态的句子里, 应该在后句使用时态助词。

ex) 늦잠을 자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因为睡懒觉所以早饭没有吃。)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등산을 못 가겠어요.

( 因为明天有重要的约定, 所以不能去登山了。)

ㄴ. 前句和后句的主语可以一致, 也可以不一致。

ex)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因为头疼,所以没睡觉。)

동생이 학교에 안 가서 엄마가 화가 나셨어요.

(因为弟弟没去上学, 所以妈妈生气了。)

ㄷ. 前句和后句中, 动词和形容词没有制约, 全部可以使用。

ex) 독서실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去读书室读书了。)

비가 와서 기분이 좋지 않다.

(因为下雨所以心情不好。)

ㄹ. 不可以用于祈使句。

ex) 음식은 상해서 못 먹는다.

(食物坏了不能吃。)

\* 음식이 상해서 드시지 마세요.

\* 공부가 재미없어서 드라마를 봅시다.

(3) '-어서'의 의미적·화용적 특징

'-어서'의 의미적 특징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이 되어 원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어서'是表示原因的语法, 相当于汉语的"因为"。连接前后两个句子。前句表示原因, 后句表示结果, 并对原因情况进行说明。) '-어서'의 화용적 특징은 '반갑다, 고맙다, 죄송하다' 등과 같은 관습적인 인사·감사·사과 표현에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어서'和 '반갑다, 고맙다, 죄송하다' 等一起使用, 表示习惯上的打招呼, 感谢, 道歉。)

ex) ㄱ. 만나서 반갑습니다.

(见到您很高兴。)

ㄴ. 늦어서 죄송합니다.

(对不起来晚了。)

ㄷ.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感谢您的参加。)

---

31) '+'표시는 제약이 있음을 나타내며, '-'표시는 제약이 없음을 나타낸다.

2) '-니까'의 예시

(1) 형태: S-(으)니까; 동사, 형용사 +(으)니까

'-(으)니까'는 받침 있는 동사 어간이나 형용사 어간 뒤에 사용한다.

'-니까'는 받침없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사용한다. ('-(으)니까' 用于有韵尾的动词或形容词词干后; '-니까'用于没有韵尾的动词或形容词词干后。)

ex) 먹다 : 떡 + 으니까 ⇒ 먹으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일을 계속 하지 못해요.

따뜻하다: 따뜻하 + 니까 ⇒ 따뜻하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일을 빨리 끝내자.

(2) 통사적 제약

통사적 제약

통사적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		주어 제약		용언 제약		문장 형태 제약		
	-었-	-겠-	일치	인칭	선행절	후행절	명령형	칭유형	의문형
-니까	-	-	-	-	-	-	-	-	-

ㄱ. 可以用在过去时态后面, 也可以用在将来时态后面。

ex) 비가 오겠으니까 빨리 집에 갑시다.

숙제를 다 했으니까 드라마 보자.

(因为作业都做完了看电视吧。)

ㄴ. 前句, 后句的主语可以一致, 也可以不一致。主语没有人称限制。

ex) 철수는 열심히 공부하니까 일등을 했다.

(因为哲秀很努力学习所以得了第一名。)

내가 옷을 사니까 영미도 옷을 샀다.

(我买了衣服英美也买了衣服。)

ㄷ. 前句中动词和形容词没有制约, 全部可以使用。

ex) 아침을 먹으니까 힘이 난다.

(因为吃了早饭所以有力气。)

날씨가 더우니까 선풍기가 잘 팔린다.

(因为天气很热所以电风扇卖的很好。)

ㄹ. 句子形态没有特别的限制。

ex)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因为晚点了所以快走吧。)

날씨가 좋으니까 쇼핑하러 가요.

(因为天气很好所以去逛街。)

아침을 먹으니까 힘이 나요?

(既然吃了早饭有力气了么?)

(3) '-니까'의 의미적·화용적 특징

'-니까'의 의미적 특징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나 판단의 근거가

됨을 말한다. 이유 표현 강도 역시 강한 편이다. ('-니까'是表示理由, 判断, 根据的语法。重点强调理由。相当于汉语的'因为'。) '-니까'의 화용적 특징은 주로 앞 문장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아는 구정보가 오는 경우가 많다. 명령, 청유의 상황에서 많이 사용한다. (前句中出现的 facts 多为说话人和听众都已经知道的事实。'-니까'多在命令和请诱的情况下使用。)

ex) ㄱ. 배가 많이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 .

(既然肚子疼的厉害, 就快点去医院。)

ㄴ. 날씨가 추우니까 난로나 살까요?

(既然天气很冷, 买一个暖炉怎么样?)

연습 단계에서는 우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통제된 연습부터 시작하여 유의미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연습활동으로는 선행절 여러 개와 후행절 여러 개를 주어 짝 맞추기, 연결어미를 활용한 질문지로 짝 활동하기, 연결어미와 연결어구가 주어진 상태에서 선행절을 주고 후행절 써 보기 또는 후행절을 주고 선행절 쓰기, 연결어미와 연결어구만 주고 문장 만들기, 만들어진 문장의 오류를 검사해 주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비교·대조하여 상황과 제약 중심으로 설명하고 예문도 직접 만들어 보게 해야 한다.

예시:

(1) 문장을 만들어 보기

나 / 어제 / 극장에 가다 / 고궁뮤지컬을 보다

⇒

배가 고프니다. / 식당에 갑니다.

⇒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 열심히 공부하세요.

⇒

(2) 질문에 대답하기

가: 친구의 집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나:

a : 왜 늦었어요?

b : 미안해요. \_\_\_\_\_ 늦었어요.

(3)정답 고르기

나는 운동을 하고 (싫으니까/싫어서) 시내에서 운동복을 샀어요.

오늘은 (바빠서/바쁘니까) 내일 만납시다.

(늦어서/늦으니까) 죄송합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서/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4) 연결하고 한 문장을 만들기

- |                  |              |
|------------------|--------------|
| ① 옷을 사고 싶다 •     | • 선물을 사야 해요. |
| ② 한국을 좋아해요 •     | • 걸어갑시다.     |
| ③ 오늘이 아내의 생일이다 • | • 백화점을 갔어요.  |
| ④ 여기에서 가깝다 •     | • 한국어를 배웠어요.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활용 단계에서는 연습 단계에서 숙달한 표현과 문법을 실제와 같이 사용해 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유 작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1) '-어서', '-니까'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 발표하기

요즘 우리 반의 공부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과 이유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요?

- 학생들은 원인과 이유를 생각해서 발표하게 한다.
- 발표한 내용을 칠판에서 적는다.
- 판서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서'와 '-니까'를 사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원인/이유: 예: 1.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2. 지각하는 학생이 많다.

3.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자주 본다.

해결 방안: 예: 1. 다른 친구가 공부할 때 이야기하니까 방해가 받는다. 사정이 있어서 이야기할 때는 작은 소리로 말해야 한다.

2.

3.

(2) 문장 쓰기

'-어서', '-니까'를 이용해서 하루의 일을 일기로 쓴다. 그리고 완성된 일기를 발표한다.

(3) 상황극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서’, ‘-니까’를 이용해서 대화문을 만들고 발표한다.

예: 수업이 끝나니 비가 온다. 우산이 없다. 비를 맞고 집에 간다. 다음날 열이 난다. 병원에 간다. 학교에 지각한다. 선생님께 휴가를 청한다.

마무리 단계는 그 수업에서 목표한 ‘-어서’, ‘-니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지식을 정리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시:

1: 우선 학습자들이 ‘-어서’와 ‘-니까’를 잘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다.

예: 틀린 문장 고르기

- (1)어제 비가 왔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 )
- (2)어제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 )
- (3)오늘 늦게 와서 내일 일찍 올게요. ( )
- (4)점심을 많이 먹어서 저녁을 안 먹어도 되겠다. ( )

2: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한다.

3: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교사에게 질문한다.

## V. 결론

지금까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자주 혼동하는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의 용법과 의미 기능, 화용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국어 인과 표현 ‘-어서’, ‘-니까’에 대응하는 중국어 인과 표현과의 대조를 통해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인 측면에서 한·중 인과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에 대한 이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서’의 통사적 특징을 보면, (1) ‘-어서’로 연결된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도 되고 달라도 된다. 즉 주어 제약이 없다. (2) ‘-어서’ 앞에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3) ‘-어서’는 ‘-었-’와 결합될 수 없고 ‘-겠-’은 추측의 의미일 때에 한정하여 결합할 수 있다. (4) ‘-어서’는 청유문과 명령문, 화자의 제안 의문문, 약속의 평서문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니까’의 통사적 특징을 보면, (1) ‘-니까’ 앞에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즉 서술어 제약이 없다. (2) ‘-니까’는 ‘-었-’, ‘-겠-’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3) ‘-니까’는 청유문, 명령문, 의문문과 평서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즉 서법 제약이 없다. (4) ‘-니까’는 주어 일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어서’의 의미적 특징은 객관적인 원인을 나타내고 보편적 상태를 전제하며 사건이 실제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반면 ‘-니까’는 주관적인 이유를 나타내고 화자의 추론 과정을 거친 주관적인 상태를 전제하며 사건의 실제성에 대해 비관여적이다. 즉, 의미적으로 ‘-어서’는 원인을 나타내고 객관적

이고 보편적 사실을 단순히 원인으로 제시하며 실재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니까’는 이유를 나타내고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추측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낸다.

‘-어서’의 화용적 특징은 공손성을 나타내고 사교적인 표현이나 관습적으로 인사 사과 감사 표현들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점이다. 또한 ‘-어서’로 연결된 문장에서 화자는 선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청자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비해 ‘-니까’는 비 공손성을 나타내며 강하고 무뚝뚝한 느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사·사과·감사 같은 공식적 표현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니까’로 연결된 문장에서 화자는 후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외에 중국어의 대표적인 인과관계 접속표현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와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의 특성을 제시했다. ‘因为…所以…’(때문에…그래서)는 후행절에 의문문과 반대의문문에 제약이 있다. 선행절이 원인을 나타내고 후행절이 결과를 나타내며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이루고 상황을 설명한다. 이때 후행절은 이미 실현된 사실이다. 화제의 초점은 주로 선행절에 있다. ‘既然…就…’(기왕이면…하겠다)는 통사적 제약이 거의 없고 역시 선행절이 원인을 나타내고 후행절이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주관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화자의 주장이나 추측을 결과로 제시한다. 여기서 후행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는 후행절에 화제의 중심을 두고 있는 표현이다.

다음으로 초급 중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기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파악해 보았다. 한국어가 모어인 학습자들은 이론지식이 없어도 ‘어서’, ‘-니까’의 의미에 대한 인지만으로 구체적인 문장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를 언어적 직감에 따라 알 수 있

다. 그러나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그 사용에서 많은 오류들을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에 관한 적절한 교수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의미적·화용적 특징을 알아 두고 그것들이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사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파악한다면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교수방안은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학습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더 논의해야 할 여지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대조 연구 결과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연결어미 학습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한정되어 있는바, 앞으로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한국어교재]

- 한국어 초급1~4,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2008, 경희대학교 출판국  
표준한국어 1~4, 북경대학교, 2007, 북경대학교 출판사  
한국어 1~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7, 교보문고  
연세한국어 1~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0, 연세대학교 출판부

### [책]

- 강성조(2005), 『실용 중국어어법』, 학고방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지혜(2010), 『한국어 이유 표현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김태성(2007), 『중국어 어법의 달인이 되는법』, 사람in  
남기심 외(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류기수(2003), 『올인 중국어문법』, 시사중국어문화원  
서창화(2003), 『중국어 문법사전』, 넥서스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이익섭(2004), 『한국어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조철현 외(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국어정책연구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北京大学中文系 现代汉语教研室(1997), 现代汉语, 商务印书馆.

房玉清(2001), 实用汉语语法, 北京大学出版社.  
 黄伯荣·廖序东(2000),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刘月华 외(2004),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刘月华·潘文·故韦(2005), 실용현대한어어법(상), 송산출판사.  
 吕叔湘·朱德熙(2004), 语法修辞讲话, 商务印书馆.  
 邢福义(2001), 汉语复句研究, 商务印书馆.

[석사 박사 논문 학술지 논문]

곽 정(2011), 「연결어미 ‘-어서’와 중국어 대응표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정영(2007), 「인과관계 의미표현에 대한 한·중 대조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성일(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결어미 ‘-아서’와 ‘-니까’의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2004),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희정(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아서’와 ‘-니까’의 교육 방안」,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선영(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모근석(2008),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교육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혜연(2007),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표현의 학습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엽희(2008), 「한·중 접속문 대조 연구 -논리 인과 접속문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이 전(2012),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연결어미 ‘-아(어서)’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벽합(2009),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의 중국어 번역방법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진(2002),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정(2001), 「한국어 학습자 담화에 나타난 연결어미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제12권 1호 (2001. 7) 233-252쪽.
- 왕정춘(2003), 「중국인 위한 한·중 대조분석-‘因为…所以…’, ‘既然…就…’와 ‘-어서’, ‘-니까’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하(2002), 「현대국어 인과관계 접속어미 연구」,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 임태운(2009), 「한국어 학습자의 인과관계 연결 표현 교육 방안」,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 상(200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 연구-[시간], [인과]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 수(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 ‘-니까’의 효과적 교수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2009), 「‘-어서’와 ‘-니까’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춘란(2009), 「한국어와 중국어 인과관계 접속문 대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 지아씨아오(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통한 인과관계 연결어미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정란(2003), 「학습자 중심으로 본 이유의 연결 표현」,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한국 문화사.
- 제 영(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 연구-‘-어서, -니까, -므로’를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45, 문창어문학회, 159-173쪽.
- 최봉량(2005), 「한·중 인과관계 표현대조와 교육」, 중국어교육과 연구1, 한국 중국어 교육학회, 31-42쪽.
- 최재희(1989), 「국어 접속문 구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 황화상(2008), 「연결어미 ‘-어서, -니까’의 의미 기능과 후행절 유형」, 국어학51, 국어학회, 57-88쪽.
- 白莲花(2007), 「韩语表示从属关系连接词尾与汉语对比研究」, 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
- 金庆爱(2005), 「韩汉原因表达对比」, 吉林大学学报.
- 沈思莹(2003), 「因果类关联词语的研究」, 安徽大学硕士学位论文.

##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al Program of Korean Conjunctive Connection Endings For Chinese Learners - Focused on ‘-어서’ ‘-니까’-**

zhangyuanyu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sage of the Korean causal conjunctive ending of ‘-어서’ ‘-니까’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to suggest a teaching method that leads to the effective learning of the Korean causal conjunctive ending of ‘-어서’ ‘-니까’.

We try to fin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both languages and understand the reason why the learners can't exactly use the causal conjunctive endings through conducting a survey, in the hope that it is more clearly for the direction of education and the effective learning content in the field of teaching.

In chapter 2, firstly, it introduced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the causal conjunctive endings in both Korean and Chinese. Secondly, the paper respectively examined in detail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causal conjunctive ending of Korean ‘-어서’ ‘-니까’

and Chinese ‘因为…所以…’ ‘既然…就…’. ‘-어서’ can’t connect the ending of the past tense and future tense in the first clause and can’t connect the meaning of a command, advice, promise, or doubt on the suggestions of the others in the second clause. ‘-어서’ explains the causal relationship of an objective description. And it is an usual way of expression in actual dialogue, and expresses a submissive and respectful attitude. Compared to ‘-어서’ there is almost no restrictions about ‘-니까’. And ‘-니까’ expresses the speaker’s subjective speculation or judgement. In dialogue this contains a disrespectful meaning. ‘因为…所以…’ shows an explanatory causal relationship and the objectivity is rather strong. ‘既然…就…’ shows an inferring causal relationship and the subjectivity is rather strong.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the third chapter show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Korean and Chinese causal conjunctive endings. ‘-어서’ corresponds exactly to ‘因为…所以…’. There are many restrictions for the syntax about ‘-어서’, but there are almost no restrictions when using ‘因为…所以…’. ‘-니까’ corresponds exactly to ‘既然…就…’ and there are no great differences for the syntax and use.

In chapter 4, the author conducted a survey for Korean learners of Chinese and analyzed the error questions of the causal connective ending of ‘-어서’ ‘-니까’. It is necessary to do this survey to show the usage of ‘-어서’ ‘-니까’ about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One can reduce the errors, and use them in actual dialogue correctly and smooth.

Finally it summarized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put forward

in some restrictions in the future research. I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Chinese learners study Korean.

## 부록 <설문지>

### ‘-어서’와 ‘-니까’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사용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학위논문 에 사용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거나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설문지는 이런 목적을 기초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객관식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각 문항 중에서 유일한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바쁜 동안에 시간을 내고 설문 에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1. 성별: 남( ) 여( )
2. 한국어 수준: 초급( )중급( )
3. 한국어 ‘-어서’와 ‘-니까’에 대한 난이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
  - a. 매우 쉽다. b. 쉽다. c. 보통이다. d. 어렵다. e. 매우 어렵다.

※다음 문제 [1~14]중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1.시간이 (없어서; 없으니까) 빨리 내립시다.
- 2.저 식당이 (맛있어서; 맛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자.
- 3.아이가 공부를 (해서; 하니까) 조용히 해라.
- 4.이 영화는 (재미있어서; 재미있으니까) 꼭 보세요.
- 5.집에 반찬이 (없어서; 없으니까) 나가서 먹을까요?
- 6.날씨가 (더워서; 더우니까) 우리 시원한 계곡에 갈까요?
- 7.네가 많이 (도와줘서; 도와줬으니까)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 8.이번 주는 시간이 (바빠서; 바쁘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 9.오늘 비가 (오겠어서; 오겠으니까) 밖에 가기 싫어요.
- 10.내일 시험 (하겠어서; 하겠으니까) 공부를 했어요.
- 11.머리가 (아팠어서; 아팠으니까) 학교에 안 갔어요.
- 12.어제 열심히 (공부했어서; 공부했으니까)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야.
- 13.(늦어서; 늦으니까) 죄송합니다.
14. 초대해 (주셔서; 주시니까)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1~6] 제시된 대화를 읽고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시오.

1). 가: 강남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나: 쇼핑몰이( )그래요.

- A. 많아서                      B. 많으니까

2). 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나: 제가 학원에( )주말에 일이 많아요.

가: 아 그럼 주말은 안 되겠군요.

A. 다녀서            B. 다니니까

3). 가: 피곤해 보인다.

나: 어제 밤에 1 시간도 ( ) 죽을 것 같아.

A. 못자서            B. 못자니까

4). 가: 저 영화를 ( )저도 단풍을 보러 가고 싶어요.

나: 그래 그럼 같이 보러 갈까?

A. 봐서            B. 보니까

5). 가: 철수 씨 오늘 왜 늦었어요?

나: 늦게 ( ) 늦었어요.

A. 일어나서            B. 일어났으니까

6).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사장님을 만날 일이 ( ) 왔습니다.

A. 있어서            B. 있으니까